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202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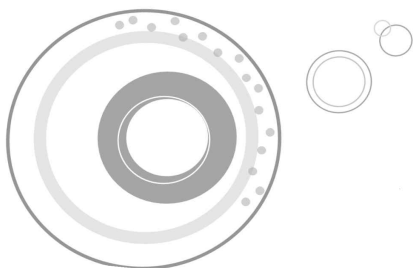
[입학처]

목 차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2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3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4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규정	4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조직구성	5
4.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6
III.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7
1. 출제 전	8
2. 출제 중	12
3. 출제 후	12
4. 금년도 개선사항 요약	14
IV. 문항분석결과 요약	15
1. 문항분석결과 요약표	16
2. 문항별 분석결과	17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9
1. 평가결과의 활용 과정과 절차	20
2.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평가의견	20
3. 향후 활용 계획	26
VI. 부록	27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우리대학 자체 규정	28
2. 논술고사의 문항 제출 양식 : 『문항카드』	30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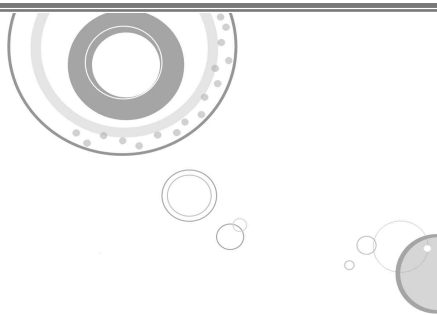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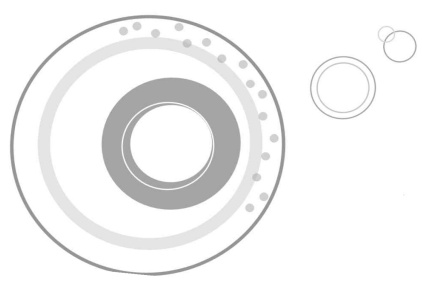
숙명여자대학교는 정부의 대학입학정책에 따라 우리 대학의 신입학 전형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의 신입생 선발 관련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의 적절함에 대한 사회적 공인을 확보하고, 신입생 선발 전형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문항 총괄표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 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관리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사회			수 학	과학				기타	
						국 어	사 회	도 덕		물 리	화 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고사	논술 우수자	인문계	-	2019-1 1회차	1	○	○	○							
			-	2019-2 1회차	2		○	○							
			-	2019-3 2회차	1		○	○							
			-	2019-4 2회차	2	○	○	○							
		자연계	-	2019-5	1-1(a)				○						
					1-1(b)										
					1-2(a)										
				1회차	1-2(b)										
					1-3(a)										
					1-3(b)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자체 점검 결과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대학은 관련 내용을 규정화

- 2015년 2월 6일자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5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 및 제5조의2

■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6.26.)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개발·면접구술고사제도 개발·논술고사 개발·학생부 반영기업 개발·자격증 및 특기 반영기법 개발 등)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전형관리 등)
5. 대학입학제도 통계 및 조사·홍보에 관한 사항(각종 통계분석·국내 외 대학 입시제도 자료 조사, 홍보 계획 수립 등)
6. 주요 전형관리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전형위원 배분 등)
7. 대학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2.6.)
8.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호번호변경 2015.2.6.)

제5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술제도개발·면접제도개발·통계분석·자료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14.6.26.)
-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 ⑤ 분과위원회의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의 경비를 입시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조신설 2015.2.6.)

- ① 위원회는 제2조제7호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 입학전형개발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소위원회 조직구성

□ 선행학습 영향평가 소위원회는 입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

- 내부위원은 논술출제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외부위원은 현직교사 3인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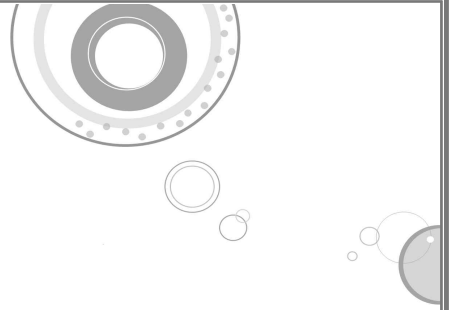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입학처	교수	신OO	내부위원
위원	입학처	교수	노OO	
위원	한국어문학부	교수	이OO	
위원	일본학과	교수	이OO	
위원	한영고등학교	교사	박OO	현직교사
위원	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이OO	
위원	진명여자고등학교	교사	홍OO	
간사	입학처	연구원	김OO	-

4.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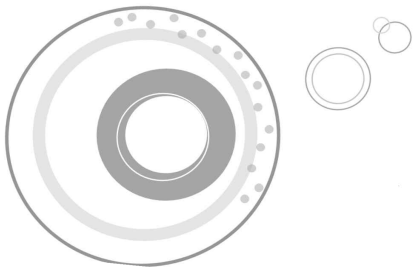
내용	일자	담당
입학처 자체평가 자료 작성 및 평가	'19.04 ~ '20.01	입학팀
입학처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 심의 및 평가	'20.1 ~ '20.2	1차 회의: 1월 17일(금)
		2차 회의: 2월 13일(목)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확정 및 처리	'20.3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 선행학습 영향평가 소위원회 활동사항

일자	내용
2020.01.17(금)	1차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개최 - 2020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 간 업무 분장
01.17(금) ~ 02.11(화)	업무 분장에 따른 출제문항 검토와 결과보고서 작성
02.13(목)	2차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개최 - 위원 별 문항 검토결과 내용 공유 - 향후 우리대학 대학별고사 발전 방안 논의 - 사교육 영향평가 보고서 제반 사항 논의
02.13(목) ~ 02.20(목)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추가 내용 검토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사항 의견 수렴
02.27(목)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1. 출제 전

○ 고교 교육과정 준수 교육 실시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대학의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 전에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자료를 출제위원별로 배부하여 출제 중간에도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교육일자	교육명
2019.10.15.(화)	2020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출제위원 고교 교육과정 사전교육(인문)
2019.10.18.(금)	2020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출제위원 고교 교육과정 사전교육(자연)

○ 교육내용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선행학습영향평가 안내
-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수(2019.08.21.)내용 전달
-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수학과 적용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안내
- 문항카드 작성 시 고려사항 안내
-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 위배사례 안내

[참고] 논술출제자 사전교육 자료

인문계열 사전교육(2019.10.15.)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선행학습영향평가 오리엔테이션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 숙명

목차

- 선행학습영향평가소개및심의절차
- 출제유의사항안내
- 문항카드작성방법안내

사업 소개

출제 범위 규정 + 자체평가 →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

출제 범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않는 것

자체 평가
- 대학별고사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
- 대학별고사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

심의 절차

해당 대학 →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 →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 교육부 → 해당 대학

자체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입학전형 반영계획 공개 (매년 3.31까지) → 대학별 자체평가 보고서 분석 → 대학별 위반 여부 및 후속조치 심의 → 해당 대학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 심의결과 반영, 다음연도 대학별고사 실시

문항카드작성방법 예시 (출제 근거2)

출제근거	도서명	과목	발행처	발행 연도	점수
교양학교과서	수학 I	인문영역	외	2016	72-78, 148-172
	수학 I	이문영역	외	2016	60-66, 148-172
	수학 II	이문영역	외	2016	152-159
	수학 II	이문영역	외	2016	137-143
	수학 II	이문영역	외	2016	81-86
	수학 II	이문영역	외	2016	83-85
기타	기타	기타	기타	2016	178-190
기타	기타	기타	기타	2016	183-196

문항카드작성방법 예시 (문항 해설)

5. 문항 해설

이차방정식, 수열, 미분, 적분, 행렬, 원, 구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본 문항들은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들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을 읽고 이차방정식, 수열, 미분, 적분, 행렬, 원, 구에 대한 물리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항카드작성방법 예시 (채점 기준)

6. 채점 기준

■ 각 세부 문항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문항 <1-l(a)>, <1-l(b)>

-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제시문 <가>에서 논의된 과정을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적용한다.
- <1-l(b)>에서 r 에 대한 이차방정식을 구한다.
- 판별식을 이용하여 실근을 가질 조건을 얻는다.
- 이차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문항카드작성방법 예시 (채점 기준2)

■ 각 세부 문항별로 다음의 기준으로 채점한다.

- 1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 2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 3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3-6의 요건 중 3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4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3-6의 요건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5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3-6의 요건 중 2가지를 만족하나 논리 전개 및 계산이 다소 미흡한 경우
- 6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3-6의 요건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7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3-6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8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 9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문항카드작성방법 예시 (예시 답안)

7. 예시 답안

■ 1-l(a)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alpha + \beta = 1$, $\alpha\beta = -\frac{3}{2}$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lpha^2 + \beta^2 = (\alpha + \beta)^2 - 2\alpha\beta = 4$$

이다. 그러므로 점 (α, β) 는 원 $x^2 + y^2 = 4$ 위에 있다.

<다른 풀이>

이차방정식 $x^2 - x - \frac{3}{2} = 0$ 의 두 근 α, β ($\alpha < \beta$)는

$$\alpha = \frac{1 - \sqrt{7}}{2}, \beta = \frac{1 + \sqrt{7}}{2}$$

이다. 점 (α, β) 는 다음과 같이 원의 방정식 $x^2 + y^2 = 4$ 를 만족시킨다.

$$\left(\frac{1 - \sqrt{7}}{2}\right)^2 + \left(\frac{1 + \sqrt{7}}{2}\right)^2 = \left(\frac{8 - 2\sqrt{7}}{4}\right) + \left(\frac{8 + 2\sqrt{7}}{4}\right) = 4$$

문항카드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정확한 이해

-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 다루지 않음(해마다 나옴)
- 용어와 기호 확인하기(명제의 이, 사인법칙, 독립변수, 종속변수 등)
- 이차곡선의 회전 이동은 다루지 않음

○ 모의논술 시행

- 수시전형 전 모의논술 운영 후 결과를 논술고사에 반영
- 논술우수자전형 대비 수험생에게 논술 출제 방향 안내 및 답안 채점, 우수답안 제공을 통한 논술준비 지원
- 논술고사와 동일한 환경 제공을 통한 입시부담 경감, 사교육 유발 억제
-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통한 논술고사의 방향과 난도 측정

구분	온·오프라인 모의논술
일시 및 장소	오프라인 모의논술 : 2019.06.15(토), 우리대학 지정 고사장 온라인 모의논술 : 2019.06.15.(토) ~ 06.22(토), 입학처 홈페이지
대상자	2020학년도 우리대학 논술우수자전형에 관심 있는 수험생
신청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모의논술 신청 페이지 가입을 통해 학생 개인 선착순 접수 오프라인 : 2019.05.20(월) 18:00 ~ 06.03(월) 17:00, 선착순 800명 온라인 : 2019.06.15.(토) 13:30 ~ 06.22.(토) 17:00, 기간 내 신청 후 응시, 선착순 600명

세부 프로그램	오프라인 모의논술 (2019.06.15) 13:30 ~ 15:30 : 오프라인 모의논술시험 실시 16:00 ~ 18:30 : 2020학년도 전형 안내, 모의논술 문항해설 및 특강 실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문항해설 및 특강자</th></tr> </thead> <tbody> <tr> <td>인문계열문항1</td><td>이○○ 교수</td></tr> <tr> <td>인문계열문항2</td><td>박○○ 교수</td></tr> <tr> <td>자연계열문항</td><td>김○○ 교수</td></tr> </tbody> </table> 온라인 모의논술 2019.06.15(토) 13:30 ~ 06.22(토) 17:00 : 시험 실시	문항해설 및 특강자		인문계열문항1	이○○ 교수	인문계열문항2	박○○ 교수	자연계열문항	김○○ 교수
문항해설 및 특강자									
인문계열문항1	이○○ 교수								
인문계열문항2	박○○ 교수								
자연계열문항	김○○ 교수								
채점결과 제공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채점결과 2019.07.05(토)이후 개별 제공 문항, 해설, 총평 및 우수답안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개								

2. 출제 중

○ 고교교육과정 전문가(현직 교사) 참여

- 사교육 확대 방지,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검토 목적으로 고교 현직 교사가 출제 과정에 참여
- 문항 출제 초기단계부터 문항 검토, 개선 의견 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검토위원의 사전 점검 기능 강화
- 현직 고교 교사 참여 비율

직위	참여 인원	현직 고교 교사 구성 비율	일반고 교사 참여 비율
현직 고교 교사	4명	28.6%	75% (일반고 교원 : 3명)

※ 현직 고교 교원 구성 비율: 현직 고교 교사 위원 수/전체 위원 수

※※ 일반고 교사 참여 비율: 일반고 교사 위원/전체 현직 고교 교사 위원

- 우리 대학은 2015년부터 계열별 각 2명씩 총 4명의 현직 고교 교사 참여 인원 유지 중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위원 수(명)	17	20	19	19	14	14
현직 고교 교사 수(명)	2	4	4	4	4	4
현직 고교 교사 참여 비율(%)	11.8	20.0	21.1	21.1	28.6	28.6

3. 출제 후

○ 출제위원, 검토위원 대상 피드백

- 출제문항, 평가기준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확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출하게 함

- 검토 결과 고교 교육과정 범위 준수, 출제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나타남

[참고]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 결과보고서 제출 내용

구분	내용
위원1	2020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 전형 인문계열의 1회차와 2회차의 문항 1, 2 전체 내용은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적용하였고, 교육과정 내의 교과 내용에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현행 고교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문항이며, 현행 고교 교육과정 속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점과 무관한 출제이다. 인문계열의 <문항>은 제시문을 일정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제시문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또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해하고, 분석하여 논제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고교 수업시간에 흔히 수행하는 독해와 분석 활동이며 교과서의 학습활동에서도 빈번히 요구하는 활동이다. 현재 고교 국어, 화법과 작문, 기타 교과의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학습활동에서 심화된 문제로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문항이다. 현행 고교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문항이다. 인문계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와 연계한 지문의 출제로, 국어 비문학 제재로 EBS교재와 참고서나 문제집에서 자주 인용되는 내용으로 전체 지문을 이해하는데 평이한 제시문이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적용하였고, 교육과정 내의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교과 내용에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현행 고교 교육과정 속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점과 무관한 출제이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에 큰 영향을 끼친 전형이다. 숙명여자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은 수년간 논술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논술고사에 지원하려는 수험생과 지도교사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사교육의 의존 없이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학교의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논술을 열심히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형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을 주는 전형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2020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 전형의 인문계열의 문항은 고교 교과서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적용하고 활용하였으며, 교육과정 내의 교과 내용에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제시문은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자료를 재구성하고 활용한 제시문이라 학생들에게 익숙한 지문이다. 학교 수업시간에 흔히 하는 독해와 분석 활동이며, 교과서의 학습활동에서 수행하는 문항이므로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큰 어려움은 없는 출제이다. 현행 고교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활용한 출제로 선행학습 유발과는 무관하다. 또한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출제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가 큰 논술 전형이다.
위원2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 전형의 출제 문제는 사회과의 사회, 법과 정치 및 사회문화 교과, 도덕과의 윤리와 사상 및 생활과 윤리 교과 그리고 범 국어과 교과(문학 등)에서 제시한 성취기준 및 교육목표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제시된 모든 제시문과 논제의 경우 숙명여자대학교의 기출문제와 모의 논술 문제의 출제 경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해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을 유지함으로써 논술우수자 전형과 관련하여 대학과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과 학생들 간에 높은 신뢰를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숙명여자대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기재로 작용함 모든 제시문은 사회, 도덕, 국어 교과에서 보편적, 일반적으로 다뤄지거나 다뤄질 수 있는 내용으로만 구성됨. 아울러 다소 난도 높은 제시문의 경우에는 일반적 고등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운문하거나 재구성하는 등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충실하고자 노력함. 이는 논술우수자 전형과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욕구뿐만 아니라 선행학습 유발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모든 논제는 고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시됨. 최근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활동이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학교 현장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학교교육활동을 해온 학생이라면 제시된 논제에 충분히 논리적,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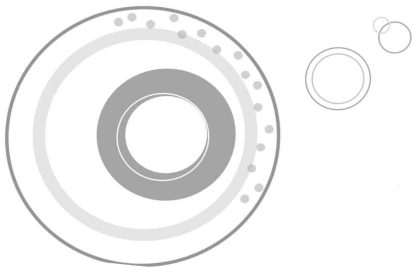
	가 정형화된 정답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시된 모든 논제는 학생들의 가치의 다양성에 근거한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유지하기 위한 채점 기준(9단계)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음 1문항 기준 60분/1,000±100자를 답안 작성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과 제시문 및 논제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충분한 합리성을 가짐 종합하면 모든 제시문과 논제 및 채점 기준은 명백히 고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교과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시됨. 이에 선행학습금지법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 유발 효과도 찾아볼 수 없음. 더불어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평가하는데 부합하도록 설계되고 출제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히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위원3	전반적으로 작년 논술이 쉬웠던 것에 비교하면 조금 난이도가 상승하였다. 하지만 작년이 난이도가 쉬웠던 것이어서 숙명여자대학교의 논술문항으로 적절한 난이도라 여겨진다.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부합하면서도 단순 암기와 반복학습을 통한 문제풀이 위주가 아닌 수학적 이해력과 논리적 전개가 필요한 적절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좋은 문제들이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가진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답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매년 좋은 문제를 출제하려 노력하는 출제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항이 꾸준히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원4	제시문과 출제문항들이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최적화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문제해결’, ‘창의·융합’ 등의 수학 교과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이와 관련된 실생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함

4. 금년도 개선사항 요약

2020학년도 개선사항 요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별고사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와 전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출제 위원들에게 주지 ·출제위원에게 고교 교육과정 범위, 수준 내 출제 지침 전달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문항 카드를 작성하게 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사전 검증 ·출제자에게 고교 교육과정 교육 이후 출제 팀별로 고교 교육과정 검토 실시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이 출제 문항 검토 후 출제위원과 합동회의에서 의견 개선 ·검토위원 대상 검토 보고서 제출 통해 검토 결과 확인 ·온-오프라인 모의논술 시행을 통한 수험생의 논술고사 준비 조력 ·논술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기출문제, 문제해설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 문제해설 동영상 공개 ·문항별 검토의견서 분할하여 내용 검토를 구체화 함



IV. 문항분석결과 요약



IV. 문항분석결과 요약

1. 문항분석결과 요약표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관리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 정 준수 여부	문항 붙임 번호*
				문항 번호				
논술 고사	논술우수자	인문 계	2019-1	1	• 국어과 (문학) • 도덕과 (생활과 윤리) • 사회과 (사회)	○	문항카드 ①	
			1회차					
			2019-2	2	• 도덕과(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과(사회, 법과 정치)	○	문항카드 ②	
			1회차					
			2019-3	1	• 도덕과(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과(사회, 사회문화)	○	문항카드 ③	
			2회차					
			2019-4	2	• 국어과(문학) • 도덕과(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과(사회)	○	문항카드 ④	
			2회차					
		자연 계	2019-5	1-1(a)	• 수학과(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미적분Ⅱ)	○	문항카드 ⑤	
				1-1(b)				
				1-2(a)	• 수학과(수학Ⅱ)	○		
			1-2(b)					
			1회차	1-3(a)	• 수학과(기하와 벡터)	○		
				1-3(b)				

*문항 붙임 번호는 [붙임]으로 제시한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번호 기재, 세부 문항 분석과 부록에 첨부함

2. 문항별 분석 결과

□ 논술고사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①~⑤)』은 “VI.부록-2”로 첨부함.

- ‘문항카드’는 각 문항별 일반정보, 문항 및 자료, 출제 의도, 출제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

□ 논술고사 개요

전형명 : 논술우수자전형		
모집인원 : 300명 (인문계 202명, 자연계 98명)		
모집시기 : 수시		
모집단위 : 인문계(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제외) 및 자연계(응용물리전공 제외) 모집단위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논술70 + 학생부(교과)30		
수능최저학력기준		
공통 : 수능 4개 영역(탐구 2과목 포함) 및 한국사 응시 필수		
인문계열 : 4개영역 중 2개 영역의 등급의 합 4이내(탐구 선택 시 1과목 반영)		
자연계열 : 4개영역 중 2개 영역의 등급의 합 4이내(탐구 선택 시 1과목 반영)		
전형일정(논술시험일)		
인문계열, 의류학과 : ‘19.11.16(토), 17(일)		
차수	시험시간	구분
1회차(11.16)	14:30~16:30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 의류학과
2회차(11.17)	09:00~11:00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경상대학, 미디어학부
자연계열(의류학과 제외) : ‘19.11.16(토) 09:00~11:00		
논술시험		
유형 : 통합논술형		
출제범위 :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		
문항수 : 인문 2문항(인문계, 의류학과), 자연 1문항(자연계, 의류학과 제외)/세부분항 있음		
시험시간 : 120분		
답안분량		
- 인문계열문항 : 1,000자±100자 (원고지형식)		
- 자연계열문항 : 노트형식		
성적산출 : 평가위원 2인이 각각 9등급(최고700점~최저525점)으로 종합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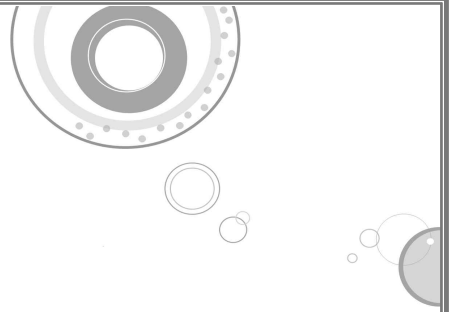
- 논술고사는 인문·자연 계열별로 진행된다. 인문계열은 단과대학별로 2회차로, 자연계열(의류학과 제외)은 1회 진행된다.

• 논술고사 출제문항 및 고교 교육과정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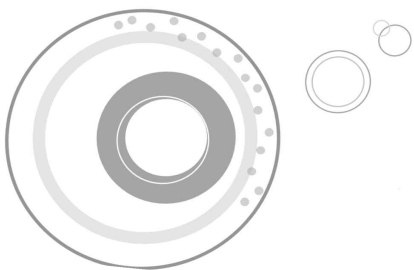
- 숙명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대입 논술전형의 문항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사고력 함양을 위한 관련 교과 학습활동의 수준과 목표성취 정도를 고려하여 출제되었다.
- 모든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깊이 공부하여 우수한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의도에 부합하며, 본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적능력을 갖춘 학

생들을 선발하기에 적합한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판단된다.

- 인문계 문항은 고등학교 국어, 사회 및 도덕 교과와 교육과정과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으며,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자연계 문항 또한 고등학교 수학 교과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제시문들의 각각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러한 출제경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논술고사 방식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어휘력과 이해력과 적용력을 측정하고 나아가 고등정신 기능인 비판능력과 종합능력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 평가결과의 활용 과정과 절차

□ 우리대학은 현행 관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실시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차년도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규정에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참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반영 절차

절차	내용	시행 주체
(1) 대학 입학 전형 실시	· 입학 전형 실시	입학처
(2) 선행 학습 영향평가 실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매년 2월 말 평가완료)	선행 학습 영향평가 소위원회
(3) 선행 학습 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공개	· 소위원회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와 전형 개선방안 보고서를 심의하고 공개(매년 3월 말)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4) 입학전형계획 수립에 반영	· 전형 개선방안 보고서에 근거하여 차년도 전형계획수립에 반영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회

2.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평가의견

□ 소위원회의 문항별 검토결과 총괄표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 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관리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위원별 검토 결과
				문항 번호		인문사회			수 학	과학				기타			
						국 어	사 회	도 덕		물 리	화 학	생 명 과 학	지 구 과 학				
논 술 고 사	논술 우수자	인문계	-	2019-1 1회차	1	○	○	○								적합	
			-	2019-2 1회차	2		○	○							적합		
			-	2019-3 2회차	1		○	○							적합		
			-	2019-4 2회차	2	○	○	○							적합		
		자연계	-	2019-5	1-1(a)	○										적합	
					1-1(b)												
				1회차	1-2(a)												
					1-2(b)												
	1-3(a)																
	1-3(b)																

□ 소위원회 위원들의 문항별 검토의견

구분	내용
인문 문항 1-1	위원 A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인문계열 1회차 1문항은 ‘타자 간 배려의 경계와 기준’이라는 주제 아래 출제되었다. 제시문은 모두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등 고교 교육과정 범주 내에서 출제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2012-14호) 내용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 출제 근거와 고교 교육과정 부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문항에 1시간을 배정한 시험 시간은 글자 수 1,000±100자의 답안을 작성하기에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으며, 충분히 답안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배분이라고 판단된다. 논제 및 문항의 주제는 현재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체와 타자 간의 ‘관계성’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배려의 기준과 경계’를 연결고리로 제시문 <가><나><다>는 각각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 전체 간의 관계성을 사고케 함으로써, 인간을 중심으로 한 주체와 그 이외의 타자 간의 접점과 차이점을 ‘관계성’의 관점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리티를 포함한 다양하고 이질적 존재들 간의 공존이 화두로 대두된 현대 사회를 돌아보기에 적합한 논제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은 이러한 논제의 문제의식을 충실히 담고 있는 사상, 철학, 문학, 비평 등의 인문사회과학 영역 전반을 망라한 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논제의 출제의도는 수험자가 현재의 시사적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충실히, 설득력 있게 논술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모범답안 또한 주어진 답안 글자 수(1,000±100자) 내에서 제시문 내용, 채점 기준 항목을 충실히 반영해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볼 때, 인문계열 1회차 1문항은 타자와의 공존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소외와 혐오가 실재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와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실존적 주제를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해 성찰하고 논술할 수 있는 수험자의 능력을 판단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문제라고 종합평가할 수 있다.
	위원 B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항 1번은 전통 윤리적 가치관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해 오는 ‘배려 윤리’의 범주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생명 윤리학적 착상이 사회학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대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과목에 대한 통섭적인 성찰과 함께 학생들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취지의 문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비교/대조적 자세를 바탕으로 각 제시문의 주제 차이를 탐구하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제시문이며 주어진 시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까지 고려하는 자세에 대한 고찰을 담은 문항으로 사회, 생활과 윤리 교과 등의 성취기준에도 부합합니다. 주어진 3개의 제시문 모두 ‘종에 대한 고려/배려의 범주’에 관해 출제된 것으로서,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전적인 영역에서의 ‘이론적 배려 윤리’를 넘어서 ‘실천적 배려’에 대한 필요성을 내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을 살펴볼 때, 제시문들을 포괄하는 주제와 그 대비점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제시문과 논제의 연계성은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사하는 바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두 제시문 사이에서의 미묘한 대조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변별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명윤리가 문학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게끔 문항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성을 갖춘 추론 능력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논술 제시문으로 학생들의 사고력, 논리력을 판단하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현존재’로서 본인의 가치관 및 신념을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학생들의 내적 모습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 문 관 항 1-2	위 원 A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인문계열 1회차 2문항은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실질적 조건’이라는 주제로 출제되었다. 문항 제시문은 사회과, 도덕과 등의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 2012-14호) 내용 검토를 통해 구체적 출제 근거와 고교 교육과정 부합성이 확인된다. 1문항 1시간의 시험배정 시간은 문항 내 2개의 세부 논제를 논술하는 데 적절한 배분이라고 판단된다. 충분히 답안의 변별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간 배분이다. 본 문항의 논제는 전통적 이념 ‘자유’를 다루면서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이분법이라는 형식적 구분을 넘어 ‘인간 주체의 존엄’을 보다 섬세히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인정된다. 특히 제시문 <다>의 장애인 이동권 사례를 예시로 소극적, 적극적 자유의 이분법을 넘어선 개인의 고유성, 주체성에 주목한다. 즉 장애인의 자기 이야기, 자기표현에 주목함으로써, ‘자유’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자유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장애인 정책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전반의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현대의 마이너리티 문제 이해에 매우 중요함을 성찰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라는 고전적 이념이 현대의 복잡하고 중층적인 마이너리티 문제와 어떻게 교차, 접목되고 있는지를 성찰적으로 묻는 시의적절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은 이러한 논제의 문제의식을 충실히 담고 있는 철학, 사상, 비평 등의 인문사회과학 영역 전반을 망라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논제의 출제 의도는 수험자가 현대 사회의 당면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을 토대로 정합적으로 논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모범답안 또한 주어진 답안 글자 수 (1,000±100자) 내에서 제시문 내용, 채점 기준 항목을 골고루 반영한 논술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으로, 인문계열 1회차 2문항은 자유의 실질적 조건을 재고해 나날이 다변화, 다층화되는 현대 사회의 제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해 논술할 수 있는 수험자의 능력을 판단하기에 매우 적절한 문제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원 B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항 2번은 자유의 의미와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이해하도록 하는 문항으로, 고전적으로 소극적으로나마 인정되었던 권리가 이념적, 또는 법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대우’에 대한 실질적 자유와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는 주제로 윤리, 법과 정치, 사회 등의 교과와 연계시킨 통섭적인 제시문이며, 교과 성취기준에도 부합하는 문항입니다. 학생들이 평소에는 일상의 권리로 당연히 생각했던 ‘자유’이라는 추상적이면서 중대한 소재에 대한 논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기존 신념과 제시문 간의 연계를 통한 색다른 접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시문 (가)를 통해 ‘자유’의 근원’에 대한 탐색과 함께 (나), (다)의 제시문으로 자기 생각을 재정립하여 이성적인 성찰을 높일 수 있게 구성한 점이 흥미롭고 제시문과 논제의 연결성이 우수한 문항입니다. 제시문 3개의 연결성이 갖는 ‘자유’와 ‘인권’의 복합적인 속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제시문 마다 나타나는 자유의 범주에 관한 기술은 학생들에게 현재 사회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투철한 사고력과 논리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단순히 인권의 유무로 사회를 단정 짓는 가치관을 지닌 학생들에게 교과 시간에 배운 ‘자유’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인식 확장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채점 기준을 살펴볼 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제시문들 사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주제는 명료하여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진정한 자유의 보장이 무엇인지를 추론하게 하는 부분에서 문제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제시문 간의 연결성은 보통의 학생들은 단순한 회로로 자유를 선의 범주로만 해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시문들 간의 통합적 사고로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한 고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답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비판적이면서 개방적인 사고능력을 불러일으켜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 문 문 항 2-1	위 원 A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2020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2회차 1번 문제는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인문계열 2회차 1번 문제는 빈곤과 공동체의 문제를 ‘공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제시하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해 논술하도록 하였다. 본 문항은 부자와 빈민이 공간적으로 서로 단절되고 공간을 통해 구별됨으로써 공동체를 위기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과 ‘사회주택’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부자와 빈민이 공간적으로 상호교류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 수험생에게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내용은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들에게는 익숙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의 내용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각 과목과 연계되어 있다.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의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사회 정의와 분배 문제,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의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의무에 대한 단원, 사회과에서의 삶의 질과 복지의 관계, 사회문화 과목에서의 사회 계층과 불평등 문제를 다룬 단원에서 다룬 내용들이 제시문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각 제시문이 글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어서 맥락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독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 자체의 어려움이 큰 제시문이 아니어서 고교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에서 독해를 훈련하고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주어진 시간 안에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모범답안은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논제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논술 내용으로 구성되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본 논술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위 원 B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주제와 제시문 빈곤과 공동체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문학 작품도 있으니 교육과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주제를 취하고 교과서 외 지문을 재구성하여 출제하였다. 재구성한 제시문의 수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읽어 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글이다. 교육과정 주제 측면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다만 논술이 쓰기의 영역인 만큼 국어과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폭 넓게 반영하게 된다. 아래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교육과정의 내용 정도를 추가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논제와 채점기준, 예시답안 논제의 요구사항과 채점기준이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논제도 있지만 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므로 명시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수험생 배려나 숙명여자대학교 논술 문항의 신뢰도 재고를 위해 표현을 수험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종합의견 제시문의 출처 및 재구성, 논제와 채점 기준 등 모두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다. 제시문의 수준이 재구성하였지만 어렵지 않다. 작성해야 할 논제가 숨은 논제가 있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답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변별력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다. 표면적으로는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며 풀어 낼 수 있다. 60분 동안 1000자를 작성하는 분량은 적절한 분량이다.
인 문 문 항 2-2	위 원 A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2020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2회차 2번 문제는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인문계열 2회차 2번 문제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고 성찰한 결과를 한 편의 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며 특히 현대인들은 자기중심주의를 내면화해 극도로 파편화된 삶을 영위하고 있어 자신과는 다른 타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

		분석	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혐오 양상은 타자와의 공감과 소통이 얼마나 힘든 과제인지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문항은 고통을 매개로 하여 타자에 대해 공감하고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수험생이 생각해 보고 이를 논술하도록 한 문항이다. 제시문 (가)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불가능이라는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추상적인 글이라면 제시문 (나)는 구체적인 한 개인의 차원에서 글이 전개되며 제시문 (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내용의 글이다. 제시문 (가)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독해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도 제시문 (나)와 (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각 제시문의 내용을 함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과, 국어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친구나 이웃 관계의 윤리, 인권 존중 공정한 사회, 공동체와 연대, 개인과 공동체, 다양성과 관용, 타자에 대한 이해 등의 개념과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 제시문 각각의 취지를 이해하고 논제에 맞추어 논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모범답안은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논제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논술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본 논술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위원 B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주제와 제시문 고통, 공감, 소통은 사회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주제이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주제를 취하고 교과서 외 지문을 재구성하여 출제하였다. 재구성한 제시문의 수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읽어 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글이다. 다만, 소통과 공감을 학생들이 많이 다루는 소재이기는 하지만 추상적인 소재이므로 다소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은 있다. 교육과정 주제 측면에서는 도덕과나 사회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다만 논술이 쓰기의 영역인 만큼 국어과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폭 넓게 반영하게 된다. 아래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교육과정의 내용 정도를 추가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논제와 채점기준, 예시답안 명시적 논제와 숨은 논제가 있다. ‘슬픈 공부의 가치’, ‘<나>를 통해 설명’, ‘극복될 수 있는 근거 제시’ 등은 명시적인 논제이다. 하지만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와 <나>를 연결해야 하고 <다>의 문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점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답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작성해야 할 부분이다. 논제와 채점기준, 예시답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추후에 수험생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종합의견 제시문의 출처 및 재구성, 논제와 채점 기준 등 모두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다. 제시문의 수준이 재구성하였지만 어렵지 않다. 작성해야 할 논제가 숨은 논제가 있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답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변별력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다. 표면적으로는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며 풀어 낼 수 있다. 60분 동안 1000자를 작성하는 분량은 적절한 분량이다. 1번 문항은 논제 표현에서 2번 문항은 주제 측면에서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으나 두 문항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어느 한쪽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자연과학	위원 A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출제하여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시문에서 다루는 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부분에 대한 학습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고교 수학 전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하는 다양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문제로 출

		제되었다고 판단됨. 제시문에서 문항 해결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에 제시된 문항 수와 시간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출제된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충분히 접해볼 만한 익숙한 상황에서 출제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용의 수준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판단해볼 때 우수한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충분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정 개념에 대한 고난이도 문제보다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기본적인 수학의 개념을 본인의 것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였다고 생각된다.
	여부 분석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위 원 B	제시문<가>와 문제<1-1> 숙명여대 논술 문항은 제시문에서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설명한 후 이를 수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수험생은 이 제시문을 충분히 이해하여 같은 상황으로 주어진 문제를 제시문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가>는 어느 극장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무대 천장에 반원 모양의 커튼과 연결된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을 양쪽에 설치하려 할 때, 커튼에 의해 가려진 영역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반원의 반지름 r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수험생들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풀이 방법을 충분히 이해 한 후 문제<1-1(a)>에서 설명된 조건에 맞는 커튼에 의해 가려진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의 넓이를 이용하여 함수 $f(t)$의 식으로 나타내고, 이를 미분하여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소가 되는 t의 값을 구하면 된다. 그리고 무대의 폭 30은 상수항으로 미분하면 없어지므로 t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또한 문제<1-1(b)>에서 커튼에 의해 가려진 영역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구하는 문제도 제시문에서 $r = \frac{h}{n}$가 $0 < r < \frac{w}{n}$을 만족할 때, 최솟값을 가진다고 제시되어 있음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h와 w를 대입하면 n에 관한 이차부등식이 되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미분에서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고교 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문제이다. 제시문<나>와 문제<1-2> 제시문<나>는 정의된 함수가 실수 a, b에 대하여 $a < b$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주어진 명제가 필요충분조건임을 증명하는 과정도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나타나게 됨을 보이는 귀류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증명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1-2(a)>에서 주어진 절대부등식도 제시문<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증명할 수 있고, 문제<1-2(b)>에서 주어진 필요충분조건을 증명하는 과정도 제시문<나>에서 설명한 방법과 같이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모순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된다. 이는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인 집합과 명제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명제들을 증명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제시문을 통해 명제의 증명 과정을 보여주고, 이를 따라 유사한 문제를 스스로 증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수학 교육과정에 적합한 문제이다. 제시문<다>와 문제<1-3> 제시문<다>는 좌표평면에서 단위원 위의 n개의 점을 잡아 n개의 위치벡터의 합이 영벡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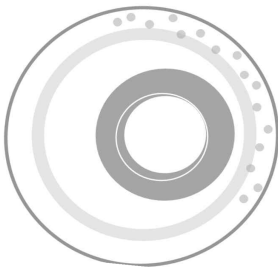
		가 되는 경우를 n의 값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1-3(a)>에서 $n=4$일 때, 4개의 점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위치벡터의 합이 영벡터가 되는지 묻는 간단한 문제이다. 그리고 문제<1-3(b)>에서도 $n=5$일 때, 5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이 고정되었을 때, 한 점이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로서 제시문과 같은 방법으로 자취의 방정식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논술 문항들은 모두 제시된 예시 답안의 풀이과정을 보더라도 그 풀이과정의 내용 모두가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으로 해결되어 있고, 고등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주어진 문제 해결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어진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출제 방식은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시험시간에 논리적 추론으로 풀 수 있어 문제풀이식의 선행 사교육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사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평가방법이다.
--	--	--

3. 향후 활용 계획

구분	2020학년도 대입전형에의 반영계획
논술고사	☐ 현재 우리대학의 논술고사 형태 및 수험생 지원 방향 유지 •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 계열 문항 확대 기조를 유지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하려 함. 계열별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학능력 및 통합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고교교육과정범위 내 출제를 준수함. • 모의논술 실시, 논술가이드북 제작 및 공개, 기출문제 및 해설 공개 등 학생들에게 우리대학의 논술고사 출제 방향 및 형태를 경험하게 하고, 수험생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 대학 제공 자료만으로 충분히 논술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출제와 평가의 연계 강화 • 출제자가 평가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출제 의도에 맞는 답안이 작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자 사전교육을 진행하여 출제와 평가의 연계를 강화함 ☐ 출제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 준수 여부 지속 점검 •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중요성, 성취기준에 대한 충분한 교육 실시 • 출제위원은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해 스스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출제하도록 하며, 출제과정 중 검토위원의 점검 및 최종 검토결과 제출을 통하여 출제 전부터 출제 후까지의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VI. 부록



VI. 부록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우리대학 자체 규정

□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 배경 및 관련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규정화

- 2015년 2월 6일자로 선행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에 두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제도 개발 및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제2조(기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6.26.)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개발·면접구술고사제도 개발·논술고사 개발·학생부 반영기법 개발·자격증 및 특기 반영기법 개발 등)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전형관리 등)
5. 대학입학제도 통계 및 조사·홍보에 관한 사항(각종 통계분석·국내외 대학 입시제도 자료 조사, 홍보 계획 수립 등)
6. 주요 전형관리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전형위원 배분 등)
7. 대학별고사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2.6.)
8.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호번호변경 2015.2.6.)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에 실무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입학처장 및 관리정보처장)은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제5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술제도개발·면접제도개발·통계분석·자료조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분과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6.26.)
-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2.)

- ⑤ 분과위원회의 연구 및 자료 조사 등의 경비를 입시경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선행 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 (조신설 2015.2.6.)

- ① 위원회는 제2조 제7호에 따른 선행 학습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 학습영향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입학전형 개발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행 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2. 대학별 고사의 선행 학습 영향에 대한 자체 분석 및 평가
 3. 향후 대입전형 개선방안 제시
 4. 선행 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
- ⑤ 대학별 고사의 선행 학습 영향평가는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완료하고, 3월 10일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선행 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은 3월 말일 이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논술고사 문항카드 제출 양식 : 『문항카드』

2-1.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회차 1번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생활과 윤리,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배려, 사랑, 동물, 생태중심주의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비슷한 자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 못지않게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평등한 사물은 모두 동일한 척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그들 자신의 영혼에 바라는 것만큼 선한 것을 받기를 바라기 마련이라면, 똑같은 본성을 지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심할 여지없이 존재하는 비슷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욕망의 일부분이라도 만족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욕망에 어긋난 것을 내가 그들에게 제공한다면, 내게 그럴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내가 해를 가하면 나 역시 고통을 당할 것을 상호 간에 예상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배려를 그들이 내게 보여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나와 평등한 사람으로부터 되도록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는 그들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만큼을 충분히 베풀어야 한다는 자연적인 의무를 내게 부과한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베푸는 배려를 동일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런 것을 과하게 행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연의 이성인 우리들 자신 및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들 간의 평등한 관계에 따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두었다.

<존 로크(John Locke), 『통치론』 중에서>

<나>

종차별주의(種差別主義, speciesism)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 인종차별주의(人種差別主義, racism)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의의 핵심은 종차별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설령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신의 목적

을 위해 상대방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인간이 좀 더 나은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인간에게 인간 아닌 존재를 착취할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는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과 저술가들은 이런저런 형태의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를 기본적인 도덕 원리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만이 이러한 원리가 우리 자신 외의 다른 종 구성원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벤담은 이를 감지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구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간 아닌 동물들이 폭군의 손이 아닌 이상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프랑스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검다는 사실이 “괴롭히는 사람이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입게 된 피해를 아무런 보상 없이 방치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이미 깨닫고 있다. 언젠가는 다리의 숫자, 피부가 털로 뒤덮였는지의 여부, 또는 꼬리가 있는지의 여부 등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통해 그들의 권리가 평등하게 배려되어야 하는가를 정할 수 있을까? 이성 능력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인가? 하지만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기 또는 생후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된 유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며, 우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설령 그들의 능력이 다르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대화를 나눌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위의 구절에서 벤담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어떤 존재가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고 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언어 능력 또는 고차원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특징이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고려함으로써 그 존재들의 권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을 배려해야 한다.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소나무들, 모래사장, 검은 숲에 걸려 있는 안개, 눈길 닿는 모든 곳, 잉잉대는 꿀벌 한 마리까지도 우리의 기억과 가슴속에서는 모두가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들의 기억을 고스란히 실어 나른다.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며,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들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 조랑말과 인간은 모두가 하나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준다. 카누를 날라주고 자식들을 길러준다. 우리는 연못 위를 쏜살같이 달려가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한낮의 비에 씻긴 바람이 머금은 소나무 내음을 사랑한다. 만물이 숨결을 나누고 있는 것이기에 공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짐승들, 나무들, 그리고 인간은 같은 숨결을 나누고 산다. 우리의 할아버지에게 첫 숨

결을 베풀어주었던 바람은 그의 마지막 한 숨결도 받아주었다. 바람은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준다. 땅은 우리 어머니이기에, 땅 위에 닳친 일은 그 땅의 아들들에게도 닳칠 것이니, 우리가 땅에다 침을 뱉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자연은 인간과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가하는 행동은 곧 그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1. <가>, <나>, <다>의 공통점을 찾고, <나>와 <다>의 각각의 관점이 <가>와 변별되는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우리는 어떤 범주까지를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가,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가>에서는 존 로크의 글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배려’해야 하며 그 까닭은 ‘내가 남에게 원하는 것은 남 또한 내게 원할 것’이라는 호혜적 원리가 있기 때문임을 보였다. <나>에서는 피터 싱어의 글을 통해 ‘우리는 동물을 배려’해야 하며 그 까닭은 ‘동물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임을 보였다. <다>에서는 ‘자연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진 글을 실었다. 인디언 추장이 쓴 것으로 알려진 이 글은 ‘사람,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배려’해야 함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이 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그물처럼 이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는 인간을, <나>는 동물을, <다>는 ‘식물 나아가 땅 같은 무생물까지도’ 배려하자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배려의 범주가 확장되는 것을 인지하는가, 또 그렇게 확장해야 하는 글쓴이들의 핵심적인 이유를 포착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중 국어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 사회를 바라보는 창 (가) 개인 이해 인간은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한 존재이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이해하여, 시민 사회에서 성숙	제시문 <가>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며, 더 나아가 타인과 사회 공동체 및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한다. ① 자신의 가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신의 현 상황(가치, 비전, 장단점 등)을 반성적으로 살펴본다. ②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 관계 및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파악하며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③ 개인을 둘러싼 자연 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자연 환경과의 공존 필요성을 파악한다. (56쪽) 사회1212.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3) 과학 기술·환경·정보 윤리 ㄴ)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윤리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동물, 생명, 생태계를 윤리적으로 배려하는 탈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과 가치 태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동물중심주의 윤리, 생명중심주의 윤리, 생태중심주의 윤리의 특성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한다. ①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주의 윤리 ② 동물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 ③ 생명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 ④ 생태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 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적 자세 (38쪽) 고생32. 동물중심주의 윤리, 생명중심주의 윤리, 생태중심주의 윤리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탈인간중심적인 자연관과 환경 문제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윤리적으로 배려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나>

3.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14) 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성취 기준 1 인간은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되어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환경 문제, 다문화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문학 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제시문 <다>

	과목명: 문학	관련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타인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 (140쪽) 310514-1.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문학 작품을 읽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상황과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치론	존 로크 (강정인, 문지영 옮김)	까치	2015	12~13	제시문<가>	×
동물해방	피터 싱어 (김성한 옮김)	연암서가	2018	35~37	제시문<나>	×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김영사	2003	15~34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4	47~50	제시문<가>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123~135	제시문<나>	○
고등학교 문학	윤여탁 외	미래엔	2014	384	제시문<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가> : 존 로크 지음, 강정인·문지영 옮김, 『통치론』, 까치, 2015, 12~13쪽.

<가>는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인용한 글로,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도 원할 것이기에 우리는 남들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베풀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원리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같은 수준을 가진 인간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확장하면 ‘남이 내게 해 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내가 남에게 해 줄 필요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려의 범주가 한정되게 된다. 가령 ‘동물에 대한 배려’가 그것인데, ‘동물을 배려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위의 기준에서 답한다면 ‘동물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에게 어떤 배려를 베풀었을 때 그들 또한 우리에게 동등한 정도의 배려를 베풀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제시문<나> : 피터 싱어 지음, 김성한 옮김, 『동물해방』, 연암서가, 2018, 35~37면

<나>는 <가>의 배려 범주를 보다 확장하고 있다. <나>의 배려 범주는 ‘동물’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배려의 기준을 ‘고통의 인지 여부’에 두기 때문이다. <나>에 의하면 ‘이성’이라든가, ‘담화 능력’, 또는 생김새 등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데, 만약 이성 등을 기준으로 둔다면 성숙한 강아지나 동물들이 미성숙한 갓난아기보다 더 우대받아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고통’을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아이나 동물이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존재라는 점에서 모두 동등하게 배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기준은 배려의 범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하겠다.

제시문<다> : 류시화 엮음,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김영사, 2003, 15~34쪽

<다>는 <나>를 넘어 배려의 범주를 식물, 무생물 등 자연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두고 있다. 그에게는 가족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두가 하나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자 한다. 이런 태도가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적인 발상이기는 하지만,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 모두를 ‘우리의 중심’에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논제의 구성

문제는 “<가>, <나>, <다>의 공통점을 찾고, <나>와 <다>의 각각의 관점이 <가>와 변별되는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로 내었는데, 각 지문의 공통점이 ‘나와 내 주변에 대한 배려와 그 이유’에 대한 것이란 점을 짚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다>의 지문들이 지닌 관점이 <가>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기준으로 인해 달라졌는지를 기술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답안의 기본 요소 -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1. <가>, <나>, <다>의 공통점을 “우리는 어느 범주까지를 배려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로 적고 있는가? 기준 2. <가>의 배려의 범위는 인간이며, 그 이유(또는 기준)은 ‘내가 준 만큼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호혜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존재인가)’를 파악하고 있는가? 기준 3. <나>의 배려의 범위는 동물이며, 그 이유(또는 기준)은 ‘고통의 인지 여부’임을 파악하고 있는가? 기준 4. <다>의 배려의 범위는 식물 나아가 무생물까지를 포함하며, 그 이유는	

‘우리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을 파악하고 있는가? 기준 5. <나>와 <다>의 관점이 <가>의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가? ※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기준 1,2,3,4,5를 모두 정확히 기술하고 있으며 단락 구분 및 정서법이 정확한 경우	1등급
기준 1,2,3,4,5를 모두 정확히 기술하고 있으나, 단락 구분 및 정서법이 부정확한 경우	2등급
1등급과 동일하되, 기준 5가 누락된 경우	3등급
2등급과 동일하되, 기준 5가 누락된 경우	4등급
1등급과 동일하되, 기준 1,5가 누락된 경우	5등급
2등급과 동일하되, 기준 1,5가 누락된 경우	6등급
기준 2와 3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된 경우	7등급
기준 2와 3이 모두 누락된 경우.	8등급
300자 이하	9등급

7. 예시 답안

<가>는 우리가 왜 우리와 같은 종들, 즉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우리와 다른 종들, 즉 동물들을 왜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자연물을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우리는 왜 나 혹은 우리 이외의 존재를 배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나>와 <다>의 관점은 <가>와 변별되는 점이 있다. 이는 ‘배려의 범주와 이유’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먼저 <나>의 관점은 <가>에 비해 ‘배려의 범주’가 넓다. <가>가 ‘인간끼리의 배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나>는 ‘동물에 대한 배려’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나>의 범주가 넓어진 것은 ‘배려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에서는 나 아닌 존재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로 ‘내가 해 준 만큼을 받을 수 있는가’ 즉, 호혜의 원칙을 들고 있지만 <나>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란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가>의 이유에 따르면 우리는 동물을 배려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도 그들이 우리를 동일하게 배려해 주리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이유에 따르면 우리는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 그들 또한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우리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의 관점 또한 <가>에 비해 ‘배려의 범주’가 넓다. 그 범주는 동물을 넘어 식물과 무생물로까지 확대되어 있다. 배려의 범주가 넓어진 까닭은 ‘배려의 이유’가 <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가>는 나와 타인

의 호혜적인 주고 받음이 그 이유지만, <다>는 나와 세상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엮어 있다고 보는 믿음이 그 이유가 된다. 이 이유에서 <다>는 ‘평등한 능력을 지닌 존재’끼리만 아닌 내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배려도 가능하게 된다. 사람이건 자연물이건 모두가 엮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나>와 <다>의 관점은 동물, 식물 및 무생물 등을 배려하고자 함으로써 <가>가 지닌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1,035자]

2-2.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회차 2번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 법과 정치
	핵심개념 및 용어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약자, 존엄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이샤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였는데, 그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이후 서구 정치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극적 자유란 외부 강제의 부재다. 즉,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방임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소극적 자유의 의미와 내용이 드러난다. 이는 외부의 강제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해 타자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상태이다. 한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 박탈이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내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만큼 자유롭다고 여긴다. 즉, 개인은 불간섭의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것이다. 타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더욱 많은 선택과 기회가 가능하므로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노예는 자신의 영역에서 극히 제한을 받거나 강제를 받는다.

적극적 자유란 “한 사람에게 이것 말고 저것을 하게끔, 이런 사람 말고 저런 사람이 되게끔 결정할 수 있는 통제와 간섭의 근원이 누구 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이 드러난다. 적극적 자유란 자신이 자신에 대해 온전한 주인이 되어 자신의 본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소원에 뿌리를 둔다. 나는 내 인생 및 결정이 나 자신에 의하여 좌우되기를 바라지, 어떤 종류가 되었건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나 자신의 생각과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싶어 한다. 소극적 자유가 ‘~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 적극적 자유는 ‘~로의 자유’이다.

<나>

자유를 행위자에게 주어진 형식적인 선택지의 범위로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행위자가 그 자유를 달성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게 만든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지 않다는 것과 행위자가 실제로 그 문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서, 외적 간섭의 부재는 행위자가 그 선택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걷기가 어려운 장애인이 실제로 이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이동을 돕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며, 장기실업

자가 실제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간접의 부재로서의 자유’와 ‘실제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을 구별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의 조건이 매우 불평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외부 개입의 부재는 자유의 조건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원에 접근하는 능력이나 획득된 자원을 자유로 전환하는 능력에서 평등하지 않다. 동일한 자원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가령 심신장애나 병의 유무 등에 따라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는 역량, 즉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바꿔 말하면, 장애나 질병 등 남보다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다>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그저 장애인을 배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이 그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존중하라는 요구와도 같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서 자원 분배를 평등하게 한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만이 문제라면, 계단이 10개 있는 회사에 장애인이 다니게 되었을 때 동료 직원들이 그 장애인을 번쩍 안거나 업어서 사무실까지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편의 제공이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은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 방식은 장애인을 사무실로 들어가게는 하지만, 그가 휠체어를 자기 몸의 일부로, 일종의 ‘스타일’로 삼아 오랜 기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 운동은 ‘이동권’을 공식적 법적 개념으로 만들어냈고,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획일성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저항해왔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이 자신의 몸과 정신적 특성, 독특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장애인 정책에 맞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0여 년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배제되는 무수히 많은 ‘잘못된 삶’들이 스스로 자기 존엄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결핍을 ‘수용’하는 윤리적 결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존엄을 서서히 확고하게 각인시켜왔다.

2. <가>를 활용하여 <나>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이사야 별린이 자유의 두 가지 개념으로 제시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서 출발하여,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실질적 조건에 대해 논술하도록 하는 문제로 고안되었다. 소극적 자유가 자유의 원형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만으로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설명한 제시문 <가>와 소극적·형식적 자유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 자유의 조건을 제시한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이러한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이해하고 논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했다. 특히, 불평등한 조건을 가진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입과 간섭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입’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인간 존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맹목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시문 <다>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사례를 통해, 단순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넘어, 그 지원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 이야기, 즉, ‘자기 이야기’, 즉 그 고유성, 독립성, 주체성,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든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시문 구성을 통해,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보고, 이를 논술할 수 있는지 평가해보는 것이 본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고교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 법과 정치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약자, 존엄의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제시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논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법과 정치]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대)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① 인권 존중의 윤리적 의미 (40쪽)	제시문 <가>
	성취기준 2	고생42.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대)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② 차별과 역차별,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40쪽)	제시문 <나> 제시문 <다>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고생43. 인권, 역차별,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배) 사회 정의 현대의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정의임을 알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의관을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한다. ②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및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57쪽) 고윤45. 현대 사회 제도에서 정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이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가>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①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58쪽) 사회1221.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성취 기준 2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②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54쪽) 사회1222.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성취 기준 3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	제시문 <나>

	과목명: 사회		관련
	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④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예: 장애인 고용제, 공정 거래 제도, 국토 균형 개발 등)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료화한다. (54쪽)		
	사회1224.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과목명: 법과 정치		관련
성취 기준 1	(3)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토대로서 헌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및 통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나) 기본권과 의무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그 한계를 파악한다. (145쪽)		제시문 <가> 제시문 <나>
	법1232. 기본권과 의무의 종류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이해하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왜 다시 자유여야 하는가? - 밀의 자유론: 사유와 비판	정재각	박영사	2019	221~222	제시문 <가>	○
자유란 무엇인가: 벌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서	사이토 준이치 (이혜진·김수영·송미정 역)	한울 아카데미	2011	76~80	제시문 <나>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사계절	2018	241~242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184~188 196~201	제시문 <가>, <나>, <다>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6	152~155 162~165	제시문 <가>, <나>, <다>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6	224~229	제시문 <가>	○
윤리와 사상	박효종 외	교학사	2015	200~207	제시문 <가>	○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5	44~59	제시문 <가>, <나>, <다>	○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5	42~61	제시문 <가>, <나>, <다>	○
법과 정치	손병로 외	금성출판사	2015	98~107	제시문 <가>, <나>	○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6	100~107	제시문 <가>, <나>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가> 정재각, 『왜 다시 자유여야 하는가? - 밀의 자유론: 사유와 비판』, 박영사, 2019, 221~222쪽

제시문 <가>는 정치철학자 이사야 벌린이 제시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소극적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이며, 외적 강제의 부재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말한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로의 자유,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하게 하는 자유이며, 자유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중요하다고 본다.

<나> 사이토 준이치, 『자유란 무엇인가: 벌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서』, 이해진·김수영·송미정 역, 한울아카데미, 2011, 76~80쪽

제시문 <나>는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비판하고 실질적으로 자유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자유가 달성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만으로는 자유가 달성되지 않으며, 실제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컨대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많은 자원이 제공되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김원영,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계절, 2018, 241~242쪽

제시문 <다>는 장애인의 예를 들어 자유의 조건을 제시하는 글이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 이동이 가능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동의 자유를 넘어 장애인의 ‘자기 이야기’, 즉 그 고유성, 독립성, 주체성,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장애인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지원이어야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 논제의 구성

본 문항의 주제는 ‘자유의 의미와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며, 이를 적절히 이해하고 논술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를 활용하여 <나>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1,000±100자)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나>를 설명해야 하는데, <가>에서 제시된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가>의 적극적 자유와 <나>의 실질적 자유의 조건을 활용하여 논술해야 한다. 소극적 자유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의 자유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앞에서 논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의 논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다>는 적극적·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려고 할 때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맹목적인 지원과 개입이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자기 이야기’, 즉 그 고유성, 독립성, 주체성,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에서도 이 점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의 적극적 자유와 <나>의 실질적 자유가 놓치기 쉬운 점을 <다>가 지적하면서 존엄성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논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조: 장애인 이동과 관련하여, 제시문 <가>, <나>, <다>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제시문				
<가>	소극적 자유	장애인 이동을 금지·방해하지 않음		
<나>	실질적 자유	상동	장애인의 이동이 실제로 가능하게 하도록 적절한 자원 제공됨 (예: 장애인 보조인,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다>	존엄이 고려된 자유	상동	상동	장애인의 고유한 특성·주체성을 보장할 방법이 제공됨. (예: 장애인을 안거나 업어서 이동시킨다면, 그의 고유한 삶 존중되고 존엄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음)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를 설명】

① 소극적 자유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함

- ~로부터의 자유, 외적 강제의 부재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 제시문 <가>

② 적극적 자유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함

- ~로의 자유, 외부 개입의 부재만으로는 자유가 달성되지 않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될 수 있는 자유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③ 실질적 자유의 의의와 내용을 논술함

- 실제로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실제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제공되어야 함,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함,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많은 자원이 제공되어야 실질적으로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제시문 <나>

• Key Word :

제시문 가) 소극적 자유: 외부의 강제, 자유의 박탈, 불간섭, 선택과 기회,
~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자유: 의지, 소원, 주체, 능동적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
~로의 자유

제시문 나) 실제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 자유의 조건, 자유의 실질적 향유,
자원에서의 불평등, 실질적 자유

【제시문 다)의 논지에 대한 평가】

④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 의의를 설명함

- 장애인이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음.

⑤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의를 논술함

- ‘정당한’ 편의 제공이 되려면 단순히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자기 이야기’, 즉 그 고유성, 독립성, 주체성,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즉, 장애인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음

⑥ 다른 사회적 약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건을 논술함

- 실질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적 자원을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그 고유성, 독립성, 주체성,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그 존엄성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함.

• Key Word : 정당한 편의 제공, 사회적 자원, 실질적 자유, 이동권, 인간존엄성, 존엄, 독립성, 주체성, 고유성, 특성

⑦ 언어 사용과 표현력

-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되, 본인의 문장으로 충분히 환문하여 자신의 글을 써야 함

⑧ 논리적 서술

- 제시문 <가>, <나>, <다>의 연관성을 잘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함.
- 특히, <나>가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다>가 <나>의

실질적 자유를 맹목적으로 추구할 때 간과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서술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를 충족시켰으나 ⑦(자신의 문장으로 기술) 또는 ⑧(논리적 서술)이 다소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을 충족시켰으나 ⑦, ⑧이 <u>모두</u> 다소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시켰으나 ⑤, ⑥, ⑦, ⑧이 다소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시켰으나 ④, ⑤, ⑥, ⑦, ⑧가 다소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가 모두 다소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가 다소 부족하며, ④, ⑤, ⑥, ⑦, ⑧가 상당히 미흡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가 모두 상당히 미흡한 경우	8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9등급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7.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두 가지가 있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나>는 단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를 달성했다고 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지적한다.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어진 기회를 실제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자유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외적 강제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그 불리한 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자원이 제공되어야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질적 자유는 개입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절한 개입 또는 지원이 제공된다는 조건에서만 보장된다는 것이다.

<다>는 한발 더 나아가,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좀 더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동을 금지하거나 방해해도 안 되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편의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살아온 삶의 고유한 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자기 이야기, 즉 그 고유성, 독립성, 주체성,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비로소 그 존엄이 보장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세심하게 고려되어야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022자]

2-3. 문항카드 ③ <인문계열 2회차 1번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도덕, 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빈곤, 소셜 믹스, 불평등, 공동체, 시민의식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고도로 양극화되고 불평등한 우리 사회에서 빈민들은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빈민들은 부자들을 텔레비전이나 잡지 표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부자들은 빈민을 볼 기회가 거의 없고 일부 공공장소에서 마주친다 해도 가난하다는 걸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 중고품 위탁 판매점과 월마트 같은 상점들 덕분에 빈곤층은 실제보다 더 여유 있는 계층처럼 보이도록 치장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40년 전에는 도심과 애팔래치아 산맥에 흩어져 있는 빈곤 지대를 다룬 ‘빈곤의 발견’이 가장 인기 있는 기사 주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빈곤 지대의 ‘사라짐’을 다루고 있는 기사를 볼 가능성이 더 높는데, 이는 이른바 중산층의 상상력 부족 때문이다.

부자들이 빈민들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빈민들과 공유하는 서비스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부자들이 빈민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공립학교와 기타 공공 서비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여가 시간을 전처럼 동네 공원에서 보내는 대신 회원제 헬스클럽과 같이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서 보낸다. 그들은 버스나 지하철도 이용하지 않는다. 여러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를 떠나 멀리 교외로,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게 담장을 둘러친 고급 주택 단지로, 혹은 경비가 있는 고층 아파트로 주거를 옮긴다. 또 ‘시장 세분화’라는 흐름에 발맞춰 부자들을 겨냥한 상점에서만 쇼핑을 한다. 부자집 아이들도 여름방학 동안 인구의 ‘나머지 반’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인명 구조원이나 웨이트리스나 호텔 청소부로 일하던 전통을 더 이상 따르지 않으려는 추세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이들은 오랫동안 꼭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여겼던 ‘힘들고, 임금도 낮고, 따분한 여름 일터’에서 일하는 것보다 진로에 도움이 될 서머스쿨이나 전문직 인턴 과정을 이수하기를 원한다.

정치적 분위기도 빈곤과 가난한 사람들에 관해 침묵을 지키자는 ‘암묵적 합의’라도 맺은 듯하다. 민주당으로서는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유례없는 호황’이라는 시기에 구태여 문제점을 찾아 부각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고, 공화당의 경우는 ‘지금껏 우리에게 익숙했던 복지’를 종식시키고 나서는 아예 빈민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졌다.

<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쁜 집에 살 이유는 없다. ‘사회주택’이 살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낙인이 없기에 중산층 중에서도 사회주택에 대한 거주 수요가 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주택이 사회주택인지 외관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자연스럽게 소셜 믹스(social mix)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꼽힌다. 이는 대부분 네덜란드 사회주택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했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피어 스메스 교수는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외부에서 보기에 디자인이 좋다”며 “사회주택과 일반주택 구별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주택을 알아챌 수 있어 ‘ 좋지 않은 집에 사는구나’라는 낙인효과가 심하지만,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선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소셜 믹스는 한국에서는 분양과 임대를 함께 조성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것을 뜻한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종교, 연령, 인종적인 소셜 믹스를 모두 포괄하는 듯했다. 네덜란드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과 민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었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소셜 믹스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들 스스로도 “다양성에 대한 역사가 있었다”면서 한국 사회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네덜란드 사회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암스테르담에도 부유층이 사는 동네와 저소득층이 많은 동네가 있지만 극단적으로 가난한 동네는 없다”며 “암스테르담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주민들은 다양한 소득 수준의 계층들이 섞이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낮은 소득의 사회주택 거주자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속 거주를 하거나 혹은 해당 주택을 민간시장에 파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섞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주택의 매매 과정에서도 이들은 “재정보다는 소셜 믹스 차원”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처럼 소셜 믹스는 편견 없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이해하는 정책으로 가치가 있다. 갈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주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왜 소셜 믹스를 시도하는가’를 알 수 있다.

<다>

미국인의 삶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재정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식 문제다. 우선 공공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길 꺼려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에 학교, 공원, 운동장, 시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된다. 한때 사람들이 모이고 시민의 미덕을 가르치는 비공식 학교 구실을 했던 공공시설이 확연히 줄어든다. 공적 영역이 공동화(空洞化)되면 민주시민 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을 수 있다. 시장에 매혹된 보수주의자들과 재분배에 주목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간과한다.

공적 영역이 잠식되는 것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정치가 공동선을 추구한다면 시민적 삶의 기초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

한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공공기관과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공립학교, 상류층 통근자를 끌어들이는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보건소, 운동장, 공원, 레크레이션 센터, 도서관, 박물관처럼, 사람들을 배타적인 공동체로부터 끌어내 민주시민 의식을 공유하는 장소로 모이게 하는 시설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사회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을 순전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시민의 미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정치·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적 생활이 필요하다. 참여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에게 더 많은 이상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유망한 기반을 제공한다.

1. <가>의 상황을 <다>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의미를 논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공간’을 통해 생각해보며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고찰하도록 하였다. 부자와 빈민이 서로 단절되고 공간을 통해 구별되는 것은 공동체의 위기라는 점에서 ‘소셜 믹스’ 사례인 사회주택을 통해 빈부와 상관없이 상호교류가 가능한 공적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다. 계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장을 만들고 연대의식에 기반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시민의 덕목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문제를 통해 각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가>의 문제상황을 <다>에서 주장하는 바를 바탕으로 <나>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분석력과 논증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4) 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가)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윤리 윤리를 바라보는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를 위해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사·분석하고, 사회의 도덕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 윤리적 관점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①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39쪽) ② 사회 구조 및 제도와 윤리 ③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고생41.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사·분석함으로써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가> <다>
	(나)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탐구한다. ① 사회 정의의 의미(40쪽) ②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 ③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④ 사형 제도의 윤리적 쟁점 고생42.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다>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4) 사회 사상 (다) 공동체와 연대 개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이를 위해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① 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 형성 기능(구성적 공동체) 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 자아의 갈등(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논의 포함) ③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56쪽) 고운42.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존재와 역할 및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다>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2) 공정성과 삶의 질 (다) 삶의 질과 복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노력을 파악한다. 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조건(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 고려)을 찾아보고, 이를 갖추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②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부와 사회 봉사가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③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지역 차 해소, 환경 고려, 복지 제도, 경제 성장 등)을 파악하고 평가한다.(61쪽)	제시문 <나>
	사회1212.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4.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사회1228.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삶의 조건을 살펴보고, 이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시각을 이해하고,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가)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으로 비교·분석한다. (153쪽) (나)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 (153쪽) (다) 빈곤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153쪽) (라) 성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한다.	제시문 <가> <다>
	사회1241.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사회1242.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43. 빈곤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2017	290~292	제시문<가>	○
[남의집살이 in 유럽]	원정희	비즈니스 워치	2019. 08.08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9/07/08/0011	제시문<나>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와이즈 베리	2015	384~390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5	162~166	제시문 <가>, <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출판사	2015	150~153	제시문 <가>, <다>	○
고등학교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5	76~81	제시문<가>	○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5	74~77	제시문<가>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병기 외	지학사	2015	251~256	제시문 <가>, <나>, <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효종 외	교학사	2015	180~184	제시문 <가>, <나>, <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김선옥 외	금성출판사	2015	218~223	제시문 <가>, <나>, <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184~188	제시문 <가>, <나>, <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5	152~155	제시문 <가>, <나>, <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바버라 에런라이크, 『노동의 배신』, 부키, 2017, 290~292쪽

<가>는 미국 사회에서 빈곤층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중산층과 부자들은 빈곤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현실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계층간에 물리적 공간이 분리되어 교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빈곤 해결을 위한 복지문제에 정치권의 무관심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나> : 원정희, “남의집살이 in 유럽”, <비즈니스 위치>, 2019.08.08

<나>는 일반 주택과 외관상 별 차이가 없는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소득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 연령, 인종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소셜 믹스의 사례다. 가난한 사람들이 낙인효과 없이 동일한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계층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5, 384~390쪽

<다>는 불평등이 심화하게 되면 공동체 의식이 붕괴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에 공공 시설의 재건을 통해 계층간 분리된 생활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공공 시설과 공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부유한 계층이 빈곤층이 함께 만나는 장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미덕을 키워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논제의 구성

※ <가>의 상황을 <다>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의미를 논하시오.
(1,000±100자)

인문계열 2회차 <문항1>에서 제시된 논제는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가>의 문제 상황을 <다>의 주장을 통해 검토하시오.

둘째 위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사례가 갖는 의미를 논하시오.

본 논술 문항의 주제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간의 공간분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논제는 제시문 <다>를 통해 <가>의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나>의 예시가 주는 함의를 해석하는 데 있다. 즉 <가>의 사회 양극화에서 기인된 공간 분리 문제를 <다>에서 언급한 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공간을 복원함으로써 공동선을 위한 시민적 미덕의 가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나>의 네덜란드 ‘사회주택’ 사례를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을 구현한 소셜 믹스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논하도록 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도덕과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계층과 불평등, 공동체와 연대, 사회정의 및 복지 등의 주제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논제로서, 각 제시문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살펴보면서 체계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답안의 기본 요소 -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에 대한 분석】

- 제시문 <가>의 문제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① <가>에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핵심을 요약한다.

- : <가>는 미국 사회가 양극화로 인해 계층 간의 공간분리가 일어나고 상호교류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함.
- 과거와는 달리 빈곤 관련 보도가 사라지고 빈민들도 자신의 가난을 감출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부자들은 빈민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방향으로 삶의 양식도 변화되면서 빈민들과 점점 분리되고 있다.
- 진보나 보수와 관계없이 정치권은 빈민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 예시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양극화, 불평등, 빈곤층, 부자, 공간, 빈곤의 발견, 공공장소, 공유, 정치적 분위기, 복지

【제시문 <다>의 핵심 주장 파악】

- 제시문 <다>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② <다>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동체 의식의 약화가 우려되기에 공적 영역의 재건과 참여정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찾아내야 함.
- 시민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공적 공간이 쇠퇴하면서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이 취약해질 수 있다.
- 소득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서로 만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공적 공간을 재건하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덕성을 키워가야 한다.

③ <다>의 관점에서 <가>를 연결하여 어떤 점이 문제 상황인지 정리한다.

- : <다>에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는 관점이 <가>에서 빈민들이 비가시화되는 상황과 계층간 공간분리라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함.
- 공공시설과 공적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적 영역이 위축되면서 <가>에서 거론한 것처럼, 부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일상의 삶에서 빈민들을 자연스레 만날 수 없게 됨으로써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 예시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불평등 심화, 시민의식, 공공서비스, 시민의 미덕, 민주 시민의식, 연대, 공동체의식, 공적 영역, 정의로운 사회, 좋은 삶, 참여정치, 공동선

【제시문 <나>의 의미 서술】

- 앞 부분의 주장과 연결하는 논의 과정에서 논리성과 설득력을 평가할 것

④ <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 <나>에서 언급한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혼합되어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써 역사성이 있음을 지적해야 함.
- 사회주택은 소셜 믹스에 바탕을 두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낙인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계층간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 간 구체적인 사례다.

⑤ <나>의 사례가 갖는 의미를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연결하여 논한다.

- : <나>에서 소셜 믹스가 가능했던 성공 요인으로 사회주택 관련 기관과 시민을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온 역사에 기반한다

는 점을 <다>의 시민의식과 연결해서 서술해야 함. - <가>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인해 빈부간 분리된 현실 상황이 <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적 공간의 복원과 민주적인 시민적 미덕을 함양함으로써, <나>의 소셜 믹스가 구현된 구체적인 사회주택 예시를 통해 계층구분 없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의미를 지적한다. • 예시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가난한 사람, 나쁜 집, 사회주택, 소셜 믹스, 낙인, 다양성,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다양한 계층, 교류, 부유층, 이해, 접점	
①, ②, ③, ④, ⑤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답안 서술이 체계적이며 완성도가 높은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문장 표현에 약간의 미흡함이 있는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기술하였으나 ⑤의 내용을 충실하게 답하지 못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기술하였으나 ④, ⑤를 미흡하게 답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기술하였어도 환문하지 않고 제시문 표현을 단순히 베껴 쓴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에서 한 두 개만 충족하여 답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하여 답안 완성도에 결함이 많은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사항과 무관하거나 답안 분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	9등급

※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7. 예시 답안

<가>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로 계층 간의 공간분리와 상호교류가 단절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빈곤 관련 기사가 보도에서 사라지고 빈민들도 자신의 가난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부자들은 빈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부자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구축하고 삶의 방식도 변화되면서 빈민들과 분리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민들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없어지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처럼 <가>는 공간을 통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통합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공간이 분리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쇠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시설과 공적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서 공적 영역이 위축되고, 서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무너질 수 있다. 즉 <가>에서 부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빈민들과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레 만날 수 없게 됨으로써 <다>가 우려하는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공적 공간이 쇠퇴하면 시민의식도 약화될 수 있기에, 단지 소득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서로 만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시설을 재건함으로써 공동선에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미덕을 키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의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소셜 믹스에 바탕을 둔 사회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낙인 없이 누구나 살만한 주택이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믹스가 가능했던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의 계급간의 공간분리로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다>에서 제시한 공동체적 가치에 입각하여 건설된 <나>의 사회주택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공존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의식과 소셜 믹스를 통해 계층 간 교류와 사회통합을 구현한 사례로서 <나>의 예시는 의미가 있다. [1,090자]

2-4. 문항카드 ④ <인문계열 2회차 2번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고통, 공감, 소통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인간에게 특정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결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과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히 같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이 역설을 인정할 때 나는 불편해지고 불우해진다. 그러나 인정은 거기서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심장이다. 심장은 언제나 제 주인만을 위해 뛰고, 계속 뛰기 위해서만 뛴다. 타인의 몸속에서 뛴 수 없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도 않는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한계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럴 때 인간은 심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이다. 아마도 나는 네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시도해도 실패할 그 일을 계속 시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이기적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위선적이기도 싫지만, 자주 둘 다가 되고 마는 심장의 비참. 이 비참에 진저리 치면서 나는 오늘도 당신의 슬픔을 공부한다. 그래서 슬픔에 대한 공부는, 슬픈 공부다.

<나>

자기 고통의 ‘지금 당장’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다.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자신이 고통에 예민해져 있고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선아는 처음 사람들과 함께 걸었을 때 자기 고통을 그들에게 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의 당사자이니 같이 걷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한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그런데 선아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서 자기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그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흔한 말이지만 자기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각자의 고통이 있었다. 종류와 강도, 그리고 대처법은 다르지만 말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고 그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아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 고통을 겪는 이들이 한결같이 동시에 겪는 것이 바로 고통이 야기하는 또 다른 고통인 외로움이라는 것을 말이다.

선아가 집단 상담에서부터 들판을 걷는 데 이르기까지 만난 사람들의 고통은 모두 다 이 외로움에 닿아 있었다. 선아는 고통의 절대성에 몸부림칠 때 자기만 괴롭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바깥을 발견하고 그 바깥의 소리를 들으며 선아는 깨닫는다. 고통을 겪는 자는 모두가 다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만 외로운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들은 다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고통의 절대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아가 발견한 것은 의외의 것이다. 고통은 절대적이기에 소통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절대성은 보편적이다. 그렇기에 고통은 사람을 나‘만’의 세계로 밀어 넣는다. 그러나 그 절대성이 나‘만’을 나‘만’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한다. 내가 외로운 만큼 너도 외롭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서로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다. 고통 자체는 절대적이라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지만, 바로 그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의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고통의 절대성 자체가 공통의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통의 절대성이 만드는 외로움에 대해, 그 외로움을 마주 대하고 넘어서려 했던 자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외로움이 세계를 파괴하고 사람을 고립시켰지만, 바로 그 외로움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외로움은 통하게 된다. 지금 몸부림치는 다른 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다>

차별 경험과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 하버드보건대학원의 낸시 크리거 교수는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차별과 같이 예민한 경험을 측정할 때는 차별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을 차별이라고 인지하는 것, 그 인지한 차별을 보고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차별을 인지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연구자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는 미국 사회에서 약자인 흑인, 여성, 아시아인 등이 차별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별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연구는 설명합니다.

구직 과정의 차별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여성 노동자와 학교 폭력에 대해 ‘아무 느낌 없다’라고 답한 남학생은 모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거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별을 겪고도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한 여성 노동자들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팠습니다. 학교 폭력을 겪은 후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했던 다문화가정 남학생들 또한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말할 수 있었던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아팠습니다.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이해하는 일은 아프면서 동시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2.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를 <나>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고통의 공감과 소통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고 답할 수 있는 문제로 고안되었다. 고통의 종류와 원인은 실로 다종다양하다. 질병·장애 등 육체적 요인에 의한 고통, 차별·소외·학교폭력·따돌림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고통,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인한 고통, 뚜렷한 요인이 없음에도 엄습하는 고통 등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의 양상은 유형화하기 어려울 만큼 다변화되었고 그만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도 증가했다.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둘러싼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고통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통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들이 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통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밖으로 말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며, 자기중심주의를 내면화해 극도로 파편화된 삶을 영위하는 현대인들이 자신과 다른 타자적 존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서로 다른 존재들에 대한 다양한 혐오 양상은 타자와의 공감과 소통이 얼마나 힘든 과제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차이와 경계를 넘어 내가 아닌 존재,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과 소통해야 할 당위성은 더 커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 문항은 고통을 매개로 타자 간 공감과 소통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table border="1"> <tr> <td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d><td>관련</td></tr> <tr> <td>성취</td><td>(2) 생명·성·가족 윤리</td><td></td></tr> </table>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2) 생명·성·가족 윤리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2) 생명·성·가족 윤리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기준 1	(예) 친구·이웃 관계의 윤리 친구와 이웃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친구 관계와 이웃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분석하고, 친구 사이에 강조되어야 할 덕목과 이웃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을 탐색하며, 친구나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① 친구 관계와 윤리 문제 (38쪽) ② 이웃 생활과 윤리 문제 (38쪽) ③ 친구나 이웃 간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방안 (38쪽) 고생25. 친구나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통해 친구와 이웃의 소중함과 친구와 이웃 사이에서 강조되어야 할 덕목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나> <다>
성취 기준 2	(4)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예)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① 인권 존중의 윤리적 의미 (40쪽) ② 차별과 역차별,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40쪽) 고생43. 인권, 역차별,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다>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4)사회사상 (예) 공동체와 연대 개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이를 위해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 자아의 갈등(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논의 포함) (56쪽) ③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56쪽) 고윤42.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존재와 역할 및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가> <나>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④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예: 장애인 고용제, 공정 거래 제도, 국토 균형 개발 등)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료화한다. (58-59쪽) 사회1224.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나) 다양성과 관용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또한 다양성이나 다문화란 단순히 인종이나 민족 문화의 차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간과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예: 문화, 종교 갈등, 학교 폭력 등)를 파악한다. (60쪽) ②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다양성 인정이 필요한 상황(지역, 인종, 계층 등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적용한다. (60쪽) ③ 다문화 사회(지역, 인종과 민족, 성, 계층, 장애 등 고려)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60쪽) 사회1225.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존중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6.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사례와 함께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이 관점을 적용하여 다양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7.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나> <다>

3.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문학과 삶 (13)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작품 속의 세계와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자신의 삶과 생각을 통해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독자는 풍부한 감수성, 예리한 통찰력, 따뜻한 포용력, 바람직한 가치관 등을 두루 갖춘 내면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문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삶의 다양성을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자아의 내면세계가 보다 넓고 깊어짐으로써 타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개성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제시문 <가> <나> <다>

과목명: 문학	관련
도록 한다. (139쪽) 310513-1.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통해 자신의 삶과 생각을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다. (14)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인간은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되어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환경 문제, 다문화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문학 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타인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 (139쪽) 310514-1.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문학 작품을 읽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상황과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310514-2.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310515-1. 문학 작품을 읽고,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310515-2. 한국 문화의 가치가 담긴 작품들을 읽고,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형철	한겨레출판	2018	27~28	제시문<가>	×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엄기호	나무연필	2018	124~126, 259~260	제시문<나>	○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2017	21~22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94~95	제시문<나>, <다>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6	164~165	제시문<다>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6	208~209	제시문<가>, <나>	○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4	55~57	제시문<나>, <다>	○
문학	박종호 외	창비	2014	286~287	제시문<가>, <나>, <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가>: 신형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출판, 2018, 27~28쪽

<가>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극복에 대한 의지를 밝힌 글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인간은 아무리 애쓴다 해도 결코 타인이 될 수 없지만 그 한계를 넘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타인의 슬픔에 대한 공부는 나와 타자 간의 넘을 수 없는 경계로 인해 ‘슬픈 공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지향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에 마냥 슬프지만은 않은 공부다. 그것은 불가능성을 넘어 공감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나>: 엄기호,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나무연필, 2018, 124~126, 259~260쪽

<나>는 고통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글이다.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 선아는 자신만이 괴롭고 아무도 자신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집단상담 등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각자 나름의 고유한 고통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 고통을 겪는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선아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 고통 자체는 각자에게 고유하고 절대적인 것이어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지만, 그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의 것’임을 발견하는 순간 고통의 교감과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 고통을 가진 이들은 이제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고통이 야기한 외로움이라는 보편적 고통을 통해 자신만의 절대적인 고통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된다. 고통의 보편적 절대성이 되레 고통을 교감하고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말하고 있다.

제시문<다>: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2017, 21~22쪽

<다>는 사회적 폭력을 경험한 당사자가 그 상처에 대해 말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상처가 각인된 몸에 관한 글이다. 차별, 학교폭력 등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쉽게 말하지 못한다. 상처를 이해하는 것이 아프면서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므로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몸은 상처 그 자체이면서, 상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기도 하다.

■논제의 구성

본 논술문항의 주제는 ‘고통의 공감과 소통 가능성’이다. 제시문<가><나><다>는 슬픔, 고통, 상처 등 마음과 몸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과 타자 간의 공감과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를 <나>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보시오. (1,000±100자)

논제는 제시문<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슬픈 공부’의 가치를 제시문<나>의 관점에서 연결해 풀어 설명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다>의 요지를 파악해 추출한 문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근거, 즉 조건을 제시할지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의 슬픔, <나>의 고통, <다>의 상처가 모두 다양

한 이유로 겪게 되는 인간의 고통과 그 소통을 문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연결해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는 비당사자의 관점에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 <나>는 당사자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기, <다>는 당사자가 고통을 말하는 것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각각 다루고 있음을 파악해 논제에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에 대한 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

- ① <가>의 요지를 통해 ‘슬픈 공부’의 의미를 파악한다.
- ② <나>의 요지를 파악해 <가>와의 연결점을 추출한다.
- ③ <나>를 통해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를 설명한다.
- ④ <다>의 요지를 통해 무엇이 문제 상황인지 파악한다.
- ⑤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 가능한 근거를 <가><나>를 통해 제시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답안의 구성요소 -답안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제시문 <가><나>의 요지를 파악해 두 지문의 연결점을 추출】 • 두 지문을 하나의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①제시문 <가>의 요지를 통해 ‘슬픈 공부’의 의미를 파악한다. -인간은 자기중심적 존재이지만 그 한계를 넘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슬픈 공부’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극복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담은 말이다. • 예시답안 첫 번째 단락의 전반부 참조 ②제시문 <나>의 요지를 파악해 <가>와의 연결점을 추출한다. -선아의 사례는 고통의 보편적 절대성이 고통을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의 고통은 <가>의 슬픔과 상통하므로, 고통을 소통한 <나>의 사례는 타인의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가>에게 유의미한 예시가 될 수 있다. • Key Word : 제시문 <가> 슬픔, 타인, 한계, 심장, 공부 제시문 <나> 고통, 고통의 절대성, 외로움, 보편적, 소통, 이야기 【제시문 <나>를 통해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 설명】 • 한 지문을 통해 다른 지문의 함의를 보완 설명하는 독해력 측정 ③<나>의 요지를 <가>의 요지와 연결해 ‘슬픈 공부’의 가치를 설명한다.	

-고통의 보편적 절대성이 오히려 고통을 교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나>의 역설은 타자와의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서고자 끊임없이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를 반영한 <가>의 ‘슬픈 공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한다. • ‘역설’ 또는 그에 준하는 단어(패러독스 등)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가산점 • 예시답안 첫 번째 단락의 후반부 참조 • Key Word : 슬픈 공부, 역설, 가치, 교감, 소통, 보편적 절대성 【제시문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 가능한 근거 제시】 • 앞의 두 지문과 연결해 문제 극복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논리력 측정 ④제시문 <다>의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다>의 문제 상황은 차별 당사자가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상처를 인지하는 것은 아프고 혼란스럽기에 당사자의 ‘자기 말하기’는 어렵다. • 말하는 것과 인지하는 것 모두의 어려움이 ‘문제 상황’이라고 답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상처를 인지하는 것의 어려움만 답한 경우는 감점 대상. • ‘몸’은 상처를 기억해 차별 경험에 대해 말하는 토대가 되므로, 상처받은 몸 자체가 문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가><나>를 통해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몸은 당사자가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처를 정직하게 기억한다. 따라서 ‘몸’은 상처의 증거로서, 상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들어주는 이가 없으면 말할 수 없으므로, 한계를 넘어 타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의 의지는 <다>의 당사자가 상처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고통의 고유성과 절대성을 넘어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 <나>의 사례도 <다>의 ‘자기 말하기’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근거다. • 당사자의 ‘아픔’이라는 점에서, <다>의 상처가 <가>의 슬픔, <나>의 고통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명확히 적시한 답안은 가산점 대상 • <가><나>만을 통해 근거를 제시한 경우보다 <다>의 ‘몸’을 근거의 하나로 문맥에 담아 제시한 답안은 가산점 대상 • 예시답안 두 번째 단락을 참조 • Key Word : 몸, 상처, 차별, 학교 폭력, 말하기, 인지, 기억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체계적인 논리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으나,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서술하였지만, 논리적 구성이 미흡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서술하였으나 ⑤를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서술하였으나 ④, ⑤를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5등급
①, ②를 서술하였으나 ③, ④, ⑤를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에서 한두 개만 충족하고 답안의 충실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의 요소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글자 수가 800자 미만인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 사항에 무관한 답을 썼거나 아래의 <유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9등급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7. 예시 답안

<가>의 ‘슬픈 공부’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극복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담은 말이다. 인간은 아무리 애쓴다 해도 결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순 없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다. 타인의 슬픔에 대한 공부는 1차적으로 나와 타자 간의 넘을 수 없는 벽을 전제하기에 ‘슬픈 공부’이지만, 한편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끊임없이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에 역설적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선아의 사례는 ‘슬픈 공부’의 가치를 뒷받침한다. 애당초 아무도 자신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가 집단상담 등을 통해 다른 이들도 각자 나름의 고통이 있으며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고통을 겪는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통 자체는 각자에게 고유하고 절대적이라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지만, 그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의 것임을 발견하는 순간 교감과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역설은 <가>의 ‘슬픈 공부’의 역설과 상통한다. 고통의 보편적 절대성이 고통을 교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나>를 통해 <가>의 ‘슬픈 공부’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의 문제 상황은 차별 당사자가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우선, 몸은 당사자가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처를 정직하게 기억하므로 상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이자 가장 명확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통의 고유성과 절대성을 넘어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 <나>의 사례, 타인의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가>의 의지도 차별 당사자가 자신의 상처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들어주는 이가 없다면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의 상처는 <가>의 슬픔, <나>의 고통과 동의어가 되며, <다>의 상처를 새긴 몸은 <가>의 심장을 넘어 <나>의 다른 이의 몸부림과 맞닿게 된다. 고통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1,080자]

2-5. 문항카드 ⑤ <자연계열 1회차 1번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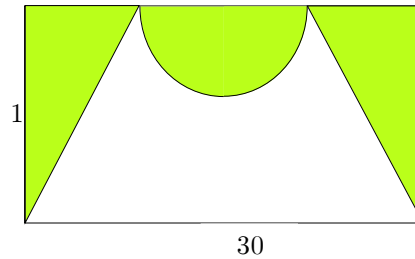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1-1(a), 1-1(b), 1-2(a), 1-2(b), 1-3(a), 1-3(b)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기하와 벡터
	핵심개념 및 용어	귀류법, 합성함수, 함수의 최대 최소, 미분, 적분, 벡터의 연산
예상 소요 시간	11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 ① 어느 극장의 무대는 관객석에서 보면 폭이 30, 높이가 10인 직사각형 모양이다. <그림 1>과 같이 무대 천장의 한가운데에 반지름의 길이가 r 인 반원 모양의 커튼과 이 반원과 연결된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을 양쪽에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무대를 볼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r 의 값을 구해보자.
- 이 문제는 커튼에 의해 가려진 영역의 넓이를 최소가 되도록 하는 r 의 값을 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영역의 넓이
- $$f(r) = \frac{1}{2}\pi r^2 + \frac{10(30-2r)}{2} \quad (\text{단, } 0 < r < 10)$$
- 을 최소화하면 된다. $f'(r) = \pi r - 10$ 이므로 $f(r)$ 은 $r = \frac{10}{\pi}$ 일 때 최솟값을 갖는다.
- 한편 $f(r)$ 에서 무대의 폭 30을 다른 수로 대체하더라도 $f'(r)$ 의 값이 같으므로 $f(r)$ 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r 의 값은 무대의 폭 30과 무관하다.



<그림 1>

이제 관객석에서 보면 폭이 w , 높이가 h 인 직사각형 모양의 무대를 생각하자. 무대 천장의 한가운데에 <그림 2>와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 인 n 개의 반원 모양의 커튼과 이 반원과 연결된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을 양쪽에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무대를 볼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r 의 값을 구해보자. 커튼에 의해 가려진 영역의 넓이

$$f(r) = \frac{n}{2}\pi r^2 + \frac{1}{2}(w - 2nr)h$$

$$(\text{단, } 0 < r < h \text{이고 } 0 < r < \frac{w}{2n})$$

를 최소화하면 된다. 이 함수는 $r = \frac{h}{\pi}$ 가 $0 < r < h$, $0 < r < \frac{w}{2n}$ 를 만족시킬 때, 이 값에서 최솟값을

가짐을 보일 수 있다. 이 r 의 값은 무대의 폭 w 와 무관하다.

<나>

함수 g 를

$$g(x) = \begin{cases} x & (x \geq 0) \\ 0 & (x < 0) \end{cases}$$

으로 정의할 때, 임의의 함수 f 와 임의의 실수 a, b 에 대하여, $a < b$ 이면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g(f(x) - a) + a \leq g(f(x) - b) + b \quad \cdots \cdots ②$$

가 성립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먼저 $f(x) \geq b$ 이면, $f(x) \geq b > a$ 이므로

$$g(f(x) - a) + a = f(x) - a + a = f(x)$$

이고

$$g(f(x) - b) + b = f(x) - b + b = f(x)$$

이다. 따라서 ②는 성립한다. 이제 $a \leq f(x) < b$ 이면

$$g(f(x) - a) + a = f(x) - a + a = f(x) \text{ 이고}$$

$$g(f(x) - b) + b = b \text{ 이다. 따라서 ②는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 f(x) < a \text{이면 } f(x) < a < b \text{이므로}$$

$$g(f(x) - a) + a = a \text{ 이고}$$

$$g(f(x) - b) + b = b \text{ 이다. 따라서 ②는 성립한다.}$$

한편 아래의 명제를 생각하자.

- ③ $\left[\begin{array}{l} \text{함수 } f \text{가 모든 실수 } x \text{에 대하여} \\ g(f(x) - 2) + 2 \leq g(f(x) - 1) + 1 \\ \text{을 만족시키는 것은 모든 실수 } x \text{에 대하여 } f(x) \geq 2 \text{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end{array} \right.$

명제 ③은 ②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함수 f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g(f(x) - 2) + 2 \leq g(f(x) - 1) + 1 \quad \cdots \cdots ④$$

을 만족시킨다고 하자. 결론을 부정하여 어떤 실수 c 에 대하여 $f(c) < 2$ 라고 가정하자. ④에 의하여

$$g(f(c) - 2) + 2 \leq g(f(c) - 1) + 1 \text{ 이고 ②에 의하여}$$

$$g(f(c) - 1) + 1 \leq g(f(c) - 2) + 2 \text{ 이므로}$$

$g(f(c) - 2) + 2 = g(f(c) - 1) + 1$ 이다. 이것은 모순임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geq 2$ 이다. 역으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geq 2$ 이면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g(f(x) - 2) + 2 \leq g(f(x) - 1) + 1 \text{ 이 성립함도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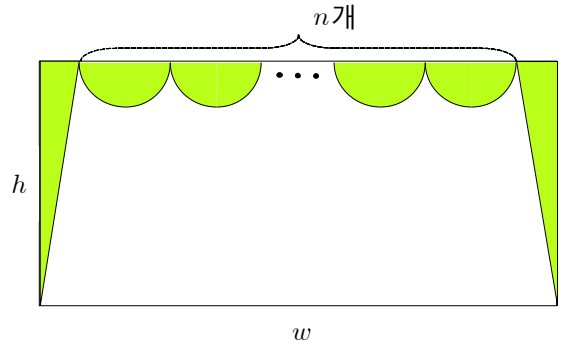
<다>

좌표평면에서 원 $x^2 + y^2 = 1$ 위에 서로 다른 n 개의 점 $A_1, A_2, \dots, A_n$ 이 있다고 하자. 이 n 개의 점이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cdots + \overrightarrow{OA_n} = \vec{0}$$

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n = 2$ 인 경우에는 점 A_1 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이 점 A_2 일 때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vec{0}$$



<그림 2>

가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n=3$ 인 경우를 생각하자. <그림 3>과 같이 원 $x^2+y^2=1$ 위에 x 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시계반대방향의 순서대로 서로 다른 세 점 A_1, A_2, A_3 이 있다. 이 세 점이 등식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vec{0}$$

를 만족시키면 이 세 점이 정삼각형의 세 꼭짓점이 됨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점 A_1 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B 를 생각하면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B}$ 가 되어야 하므로 사각형 OA_2BA_3 은 평행사변형이다. 그런데 두 변 OA_2 와 OA_3 은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으므로 사각형 OA_2BA_3 은 마름모이다.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등분하므로 선분 A_2A_3 은 선분 OB 를 수직이등분한다. 따라서 두 점 A_2 와 A_3 은 선분 OB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의 교점이다. <그림 3>에서 선분 A_2A_3 의 중점을 점 M 이라 하면 삼각형 OMA_2 와 삼각형 A_1MA_2 가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선분 A_2M 의 길이는 $\frac{\sqrt{3}}{2}$ 이고 선분 A_1A_2 의 길이는 $\sqrt{3}$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각형 $A_1A_2A_3$ 의 다른 두 변의 길이도 $\sqrt{3}$ 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점의 개수를 하나 더 늘려 $n=4$ 인 경우를 생각하자. <그림 4>와 같이 원 $x^2+y^2=1$ 위에 x 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시계반대방향의 순서대로 서로 다른 네 점 A_1, A_2, A_3, A_4 가 있다. 이 네 점이 등식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vec{0}$$

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벡터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의 끝점을 점 B 라 하고 점 B 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점 C 라 하면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overrightarrow{OC}$ 가 되어야 한다. 위의 $n=3$ 인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 OA_3CA_4 는 마름모가 됨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선분 OC 의 길이는 선분 OB 의 길이와 같고, 이는 2보다 작으므로 선분 OC 의 수직이등분선은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따라서 두 점 A_3 과 A_4 는 선분 OC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의 두 교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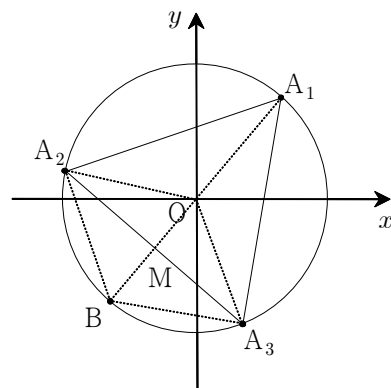
한편 $n=5$ 인 경우, 예를 들어 세 점 $A_1(1,0)$, $A_2\left(\frac{\sqrt{2}}{2}, \frac{\sqrt{2}}{2}\right)$, $A_3(0,1)$ 에 대하여 등식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overrightarrow{OA_5} = \vec{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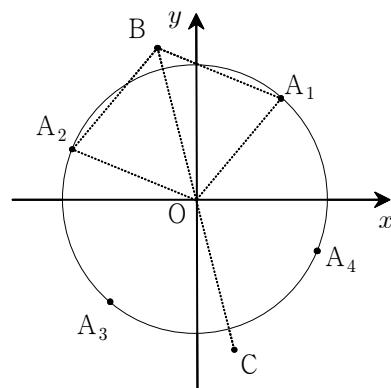
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점 A_4, A_5 는 원 $x^2+y^2=1$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left(1 + \frac{\sqrt{2}}{2}, 1 + \frac{\sqrt{2}}{2}\right)$$

의 크기가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일 수 있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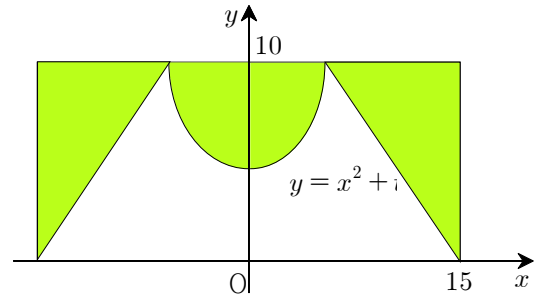
<그림 4>

1-1. 제시문 <가>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1(a). <그림 1>에서 직사각형의 밑변을 x 축으로 하고 밑변의 중점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평면을 생각하자. <그림 5>와 같이 반원 모양의 커튼 대신 포물선

$$y = x^2 + t \quad (\text{단, } 0 < t < 10)$$

모양의 커튼을 생각하자. 이때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을 제외한 무대를 볼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t 의 값을 구하시오. 또한 이 t 의 값이 무대의 폭 30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그림 1>

1-1(b). <그림 2>와 같이 자연수 n 에 대하여 폭 $w = \frac{n^2 + 11}{\pi}$, 높이 $h = 6$ 인 직사각형 모양의 무대가 있다. 이 무대 천장의 한가운데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n 개의 반원 모양의 커튼과 이 반원과 연결된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을 양쪽에 설치하려고 한다.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넓이를 최소화 되도록 할 때, 무대 양쪽에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이 설치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 을 구하시오.

1-2. 제시문 <나>를 읽고 함수

$$h(x) = \begin{cases} 0 & (x > 0) \\ x & (x \leq 0) \end{cases}$$

에 대한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2(a). 임의의 함수 f 와 임의의 실수 a, b 에 대하여, $a < b$ 이면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h(f(x) - a) + a \leq h(f(x) - b) + b$$

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1-2(b). 함수 f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h(f(x) - 7) + 7 \leq h(f(x) - 5) + 5$$

를 만족시키는 것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leq 5$ 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보이시오.

1-3. 제시문 <다>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3(a). 좌표평면에서 원 $x^2 + y^2 = 1$ 위에 x 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시계반대방향의 순서대로 서로 다른 네 점 A_1, A_2, A_3, A_4 가 있다고 하자. 점 $A_1(1, 0)$ 이고 이 네 점이 등식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vec{0}$$

를 만족시킬 때, 점 A_3 의 좌표를 구하시오.

1-3(b). 좌표평면에서 원 $x^2 + y^2 = 1$ 위에 세 점 $A_1\left(\frac{\sqrt{3}}{2}, \frac{1}{2}\right), A_2\left(\frac{\sqrt{3}}{2}, -\frac{1}{2}\right), A_3(a, b)$ 가 있다고 하자. 등식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overrightarrow{OA_5} = \vec{0}$ 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점 A_4, A_5 가 원 $x^2 + y^2 = 1$ 위에 있을 때, 점 $A_3(a, b)$ 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단, 다섯 점 A_1, A_2, A_3, A_4, A_5 가 원 위에 놓이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출제 의도

명제, 함수, 미분, 적분, 평면벡터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본 문항들은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기하와 벡터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들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문항들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들을 읽고 함수의 최대 최소, 귀류법을 이용한 명제의 증명, 미분, 적분, 벡터의 연산에 대한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제시문 <가>	교육과정	[미적분I] - (다) 다항함수의 미분법 - ㉓ 도함수의 활용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II] - (다) 미분법 - ㉒ 도함수의 활용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성취기준· 성취수준	[미적분I] - (3) 다항함수의 미분법 - (다) 도함수의 활용 미적1333.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II] - (3) 미분법 - (나) 도함수의 활용 미적2322.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제시문 <나>	교육과정	[수학 II] - (가) 집합과 명제 - ㉒ 명제 ③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이해한다. 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수학 II] - (나) 함수 - ㉑ 함수 ①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②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성취수준	[수학 II] - (1) 집합과 명제 - (나) 명제 수학2121.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이해한다. 수학2122. 명제의 역과 대우를 이해한다. 수학2123.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이해한다. 수학2125.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수학 II] - (2) 함수 - (가) 함수 수학2211.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수학2212.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제시문 <다>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 - (나) 평면벡터 - ㉑ 벡터의 연산 ②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성취기준· 성취수준	[기하와 벡터] - (2) 평면벡터 - (가) 벡터의 연산 기백1211/1212. 벡터의 뜻을 알고,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문제 <1-1>	교육과정	[수학I] - (나) 방정식과 부등식 - ㉔ 여러 가지 부등식 ② 이차함수와 이차부등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수학II] - (나) 함수 - ㉑ 함수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미적분I] - (다) 다항함수의 미분법 - ㉓ 도함수의 활용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II] - (다) 미분법 - ㉒ 도함수의 활용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미적분II] - (라) 적분법 - ㉒ 정적분의 활용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수학I] - (2) 방정식과 부등식 - (라) 여러 가지 부등식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문제 <1-2>	성취수준	수학1242-1. 이차함수와 이차 부등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수학III] - (2) 함수 - (가) 함수 수학2211.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미적분I] - (3) 다항함수의 미분법 - (다) 도함수의 활용 미적1333.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II] - (3) 미분법 - (나) 도함수의 활용 미적2322.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미적분II] - (4) 적분법 - (나) 정적분의 활용 미적2421.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	[수학 II] - (가) 집합과 명제 - ㉔ 명제 ③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이해한다. 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수학 II] - (나) 함수 - ㉑ 함수 ①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②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성취수준	[수학 II] - (1) 집합과 명제 - (나) 명제 수학2121.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이해한다. 수학2122. 명제의 역과 대우를 이해한다. 수학2123.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이해한다. 수학2125.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수학 II] - (2) 함수 - (가) 함수 수학2211.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수학2212.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 <1-3>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 - (나) 평면벡터 - ㉑ 벡터의 연산 ②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성취기준· 성취수준	[기하와 벡터] - (2) 평면벡터 - (가) 벡터의 연산 기백1211/1212. 벡터의 뜻을 알고,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I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14	112~116
	수학I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14	68~69
	미적분I	김원경 외	비상교육	2014	104~110
	미적분II	신향균 외	지학사	2014	130~137 175~180
	기하와 벡터	신향균 외	지학사	2014	62~79
	기하와 벡터	우정호 외	동아출판	2014	64~87
기타					

1)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관련 자료별로 교과서 근거를 작성.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에서는 극장의 무대에 반원 모양의 커튼과 이 반원과 연결된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을 양쪽에 설치할 때,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무대를 볼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문제 1-1(a)>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소개된 풀이 방법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원 모양의 커튼 대신 포물선 모양의 커튼을 설치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1-1(b)>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함수의 정의역을 파악하여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넓이를 최소가 되도록 할 때, 무대 양쪽에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이 설치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어떤 함수 g 에 대하여 임의의 함수 f 가 g 와 관련된 어떤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증명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문제 1-2(a)>와 <문제 1-2(b)>에서는 함수 g 와 유사한 함수 h 가 주어졌을 때,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함수 g 에 관한 부등식들을 증명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h 에 관한 부등식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좌표평면 위의 크기가 1인 n 개의 벡터들이 그 합이 영벡터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벡터들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에 대하여 설명한다. 크기가 1인 두 벡터의 합의 크기가 2보다 작게 주어진 경우 두 벡터는 유일하게 결정됨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문제 1-3(a)>에서는 제시문 <다>의 설명을 이해하고 $n=4$ 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1-3(b)>에서는 $n=5$ 인 경우 세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두 벡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제시문 <다>를 통하여 이해하고 그 두 벡터가 존재할 조건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 각 세부 문제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문제 <1-1(a)>, <1-1(b)>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제시문 <가>에서 논의된 과정을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1-1(a)>에서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을 얻는다.

위에서 구한 적분을 미분하여 <1-1(a)>에서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t 의 값을 구하고, 이 t 의 값이 무대의 폭 30과 관련이 없음을 설명한다.

<1-1(b)>에서 무대 양쪽에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이 설치되며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부등식을 찾는다.

부등식의 풀이로부터 <1-1(b)>의 답을 구한다.

▶ 문제 <1-2(a)>, <1-2(b)>

1.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2. 제시문 <나>에서 논의된 과정을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3. 정의된 함수 h 를 이해한다.

4. <1-2(a)>에서 임의의 함수 f 와 $a < b$ 를 만족하는 실수 a, b 에 대하여, $f(x)$ 의 값에 대한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한다.

5. <1-2(b)>에서 제시된 명제를 제시문 <나>와 같이 귀류법을 사용하여 증명한다.

6. <1-2(b)>에서 제시된 명제의 역을 증명한다.

논제 <1-3(a)>, <1-3(b)>

제시문 <다>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제시문 <다>에서 논의된 과정을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1-3(a)>에서 두 점 A_1 과 A_2 로부터 점 C 를 찾고 두 점 A_3 과 A_4 가 선분 OC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 $x^2 + y^2 = 1$ 의 두 교점임을 설명한다.

<1-3(a)>에서 점 A_3 은 점 A_1 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임을 증명한다.

<1-3(b)>에서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두 벡터 $\overrightarrow{OA_4}$, $\overrightarrow{OA_5}$ 의 합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을 구한다.

<1-3(b)>에서 앞에서 구한 조건을 적용하여 점 $A_3(a, b)$ 가 나타내는 도형이 반원임을 설명하고 그 길이를 구한다.

■ 각 세부 문제별로 다음의 기준으로 채점한다.

- 1 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 2 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 3 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3-6의 요건 중 3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4 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3-6의 요건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5 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3-6의 요건 중 2가지를 만족하나 논리 전개 및 계산이 다소 미흡한 경우
- 6 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3-6의 요건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7 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3-6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8 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 9 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7. 예시 답안

■ 1-1(a)

포물선 $y = x^2 + t$ 는 점 $(-\sqrt{10-t}, 10)$, $(\sqrt{10-t}, 10)$ 을 지나므로 대칭성에 의해 이 영역의 반의 넓이

$$f(t) = \int_0^{\sqrt{10-t}} (10 - (x^2 + t)) dx + \frac{10(15 - \sqrt{10-t})}{2} = \frac{1}{3}(5\sqrt{10-t} - 2t\sqrt{10-t}) + 75$$

(단, $0 < t < 10$)을 최소화하면 된다. 한편, $f'(t) = \frac{2t-15}{2\sqrt{10-t}} = 0$ 을 만족하는 t 는 $\frac{15}{2}$ 이고, 이때 $f(t)$ 는

최솟값을 가지므로 무대 바닥의 한가운데에서 $\frac{15}{2}$ 만큼 떨어진 곳을 꼭짓점으로 하는 포물선모양의 커튼을 설치하면 된다. 한편, $f(t)$ 에서 무대의 폭의 반인 15를 다른 수로 대체하더라도 $f'(t)$ 의 값이 같으므로 $f(t)$ 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t 의 값은 무대의 폭 30과 무관하다.

■ 1-1(b)

무대 양쪽에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이 설치되며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frac{6}{\pi} < \frac{n^2 + 11}{2\pi n}$, 즉 $n^2 - 12n + 11 = (n-1)(n-11) > 0$ 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

연수는 12이다.

■ 1-2(a)

먼저 $f(x) > b$ 이면, $f(x) > b > a$ 이므로

$$h(f(x) - a) + a = a$$

이고

$$h(f(x) - b) + b = b$$

이다. 따라서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제 $a < f(x) \leq b$ 이면

$$h(f(x) - a) + a = a$$

이고

$$h(f(x) - b) + b = f(x) - b + b = f(x)$$

이다. 따라서 부등식은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f(x) \leq a$ 이면 $f(x) \leq a < b$ 이므로

$$h(f(x) - a) + a = f(x) - a + a = f(x)$$

이고

$$h(f(x) - b) + b = f(x) - b + b = f(x)$$

이다. 따라서 부등식은 성립한다.

■ 1-2(b)

함수 f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h(f(x) - 7) + 7 \leq h(f(x) - 5) + 5$ 를 만족시킨다고 하자.

결론을 부정하여 어떤 실수 c 에 대하여 $f(c) > 5$ 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h(f(c) - 7) + 7 \leq h(f(c) - 5) + 5$$

이고 논제 1-2(a)에 의하여

$$h(f(c) - 5) + 5 \leq h(f(c) - 7) + 7$$

이므로

$$h(f(c) - 7) + 7 = h(f(c) - 5) + 5$$

이다. 그런데 $5 < f(c) \leq 7$ 이면

$$h(f(c) - 7) + 7 = f(c) > 5 = h(f(c) - 5) + 5$$

이므로 모순이고, $f(c) > 7$ 이면

$$h(f(c) - 7) + 7 = 7 > 5 = h(f(c) - 5) + 5$$

이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leq 5$ 이다. 역으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leq 5 < 7$ 이므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h(f(x) - 7) + 7 = f(x) = h(f(x) - 5) + 5$$

가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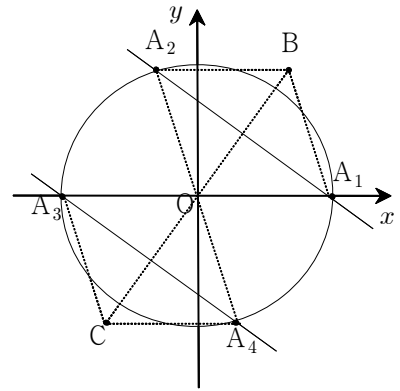
$$h(f(x) - 7) + 7 \leq h(f(x) - 5) + 5$$

가 성립한다.

■ 1-3(a)

먼저 점 A_2 의 y 좌표가 0 이하라 하면, 문제의 가정에 의하여 두 점 A_3 과 A_4 의 y 좌표가 모두 음수가 되므로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vec{0}$ 를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점 A_2 의 y 좌표는 0보다 크다. 벡터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의 끝점을 점 B 라 하고 점 B 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점 C 라 두자.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B}$ 이므로 사각형 OA_1BA_2 는 평행사변형이다. 그런데 두 변 OA_1 와 OA_2 는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으므로 사각형 OA_1BA_2 는 마름모이다.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하므로 선분 A_1A_2 는 선분 OB 의 수직이등분선이다. 따라서 두 점 A_1 과 A_2 는 선분 OB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 $x^2 + y^2 = 1$ 의 두 교점이다. 같은 방법으로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overrightarrow{OC}$ 이므로 점 A_3 과 A_4 는 선분 OC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 $x^2 + y^2 = 1$ 의 두 교점임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overline{OA_1} = \overline{OA_3} = 1$, $\overline{A_1B} = \overline{A_3C} = 1$ 이고, $\overline{OB} = \overline{OC}$ 이므로 삼각형 OA_1B 와 삼각형 OA_3C 는 합동이다. 따라서 $\angle BOA_1 = \angle COA_3$ 이고 두 선분 OB 와 OC 가 일직선을 이루므로 두 선분 OA_1 과 OA_3 은 일직선을 이룬다. 따라서 점 A_3 는 점 A_1 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A_3(-1, 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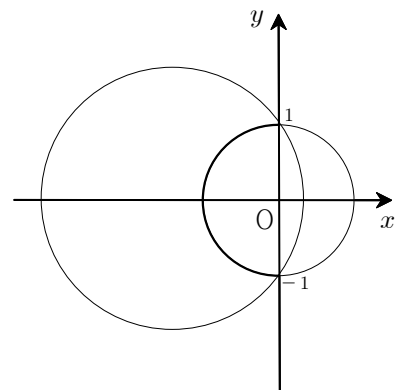


■ 1-3(b)

점 A_4, A_5 는 $\overrightarrow{OA_4} + \overrightarrow{OA_5} = (-\sqrt{3}-a, -b)$ 를 만족시키는 원 $x^2 + y^2 = 1$ 위의 점이다. 점 $B(-\sqrt{3}-a, -b)$ 에 대하여 두 벡터 $\overrightarrow{OA_4}, \overrightarrow{OA_5}$ 의 합이 $\overrightarrow{OB}$ 가 되어야 하므로 두 점 A_4, A_5 가 원 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선분 OB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한다. 즉, 선분 OB 의 길이가 2 미만이 되어야 한다. (선분 OB 의 길이가 2일 때는 선분 OB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이 접하여 한점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A_3(a, b)$ 는 원 $x^2 + y^2 = 1$ 위의 점이면서 원

$$(x + \sqrt{3})^2 + y^2 = 4$$

의 내부의 점이다. 따라서, 점 $A_3(a, b)$ 가 나타내는 도형은 반원이다. 그러므로 도형의 길이는 π 이다.



<다른 풀이>

점 $A_3(\cos\theta, \sin\theta)$ 라 두면

$$\overrightarrow{OA_4} + \overrightarrow{OA_5} = (-\sqrt{3} - \cos\theta, -\sin\theta)$$

이다. 점 $B(-\sqrt{3} - \cos\theta, -\sin\theta)$ 에 대하여 두 벡터 $\overrightarrow{OA_4}, \overrightarrow{OA_5}$ 의 합이 $\overrightarrow{OB}$ 이므로 두 점 A_4, A_5 가 원 위에 존재하기 위하여는 선분 OB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한다. 즉, 선분 OB 의 길이가 2 미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sqrt{(\cos\theta + \sqrt{3})^2 + \sin^2\theta} < 2,$$

즉, $2\sqrt{3}\cos\theta < 0$ 이므로 이를 풀면 $\frac{\pi}{2} < \theta < \frac{3\pi}{2}$ 이고 점 A_3 가 나타내는 도형은 반원이다. 그러므로 도형의 길이는 π 이다.